

“아픔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희망이다 6〉 해군사관학교 합격한 오드리 박 양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것을 결정하는 것이 대학이다. 어느 학교에 어느 전공으로 진학하느냐에 따라 직업과 진로의 향방이 크게 바뀌기도 한다. “이 학교가 명문이라,” “이 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이 잘 될 거야,” 등 학교를 선택하는 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오늘은 오빠의 눈물 때문에 그 학교를 선택한 여동생의 이야기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있는 기독교 사립학교 새인 약초중고등학교(NCA)의 12학년인 오드리 박(한국 이름 박주연) 양은 얼마 전 미국해군사관학교(The United States Naval Academy)로부터 합격통지서를 받았다.

“그래도 여자인데 해군은 좀 그렇지 않아요?”란 기자의 질문에 “내게 딱 맞는 일”이라는 당돌한 답이 돌아온다. 그러면서 해군사관학교 여름 세미나가 얼마나 좋았는지 쉴 새 없이 기사를 설득한다. 말이 ‘여름 세미나’지 알고 보면, 해군사관학교가 우수한 고등학생들을 뽑아 일주일 동안 학교를 경험하게 하는 빠센 군대 체험이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꼭대기 층에서 매일 새벽 점호를 하기 위해 뛰어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봐도 영락없는 수다쟁이 여고생이다.

박 양이 해군사관학교를 선택한 이유, 아니 그보다 앞서 이 학교를 알게 된 계기는 오빠였다. 박 양보다 4살 위인 오빠도 이 학교에 지원했었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그런데 막판에 정밀 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결과 색맹이 발견돼 합격이 취소됐다.

오빠뿐 아니라 온 가족에게 작지 않은 충격이었다. 수년간의 공부와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까다로운 심사 절차까지 모두 마친 터라 아쉬움은 더 컸다. 색맹을 갖고 태어난 것이 무슨 죄란 말인가?

박 양에겐 그렇게 알게 된 해군사관학교였기에 “반드시 뛰어넘고 말겠다”는 오기가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4년 뒤 오빠가 이루지 못한 꿈을 여동생이 이뤄냈다. 박 양의 합격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한 사람도 다름 아닌 오빠였다.

“정말 네가 자랑스러워.”

오빠는 이 한마디를 하며 4년 전의 아픔을 다 보상받은 듯 기뻐했다. 박 양이 입고 있는 해군사관학교 레티맨 재킷도 오빠가 자신이 입지 못한 것을 4년간 보관했다가 이번에 선물로 준 것이다.

물론 미국에서 해군사관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는 아니다. 그러나 국가와 생명을 지키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이와 관련된 영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는 박 양에겐



최고의 학교임이 틀림없다. 최고의 학교에 진학하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최고의 학교가 있었다. 바로 새인약학교였다. 자신의 꿈을 믿고 지지해준 선생님들, 함께 공부하며 격려해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이슨 송 교장은 “우리 학교는 학생의 꿈을 존중한다. 학생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준비시키고 가능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송 교장은 “여느 학생과 마찬가지로 오드리에게도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루었다는 점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했다. 박 양의 부모인 존 박 씨와 씨니 박 씨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전인적으로 딸을 가르쳐 준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부모님과 오빠, 새인약학교 외에도 박 양이 빼놓지 않고 매일 감사를 전하는 대상이 있다.

“만약 그분이 저를 붙들고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시다. 이렇게 가끔 ‘아픔’이란 방법을 사용해서 아픈 사람도, 아픈 사람의 주변 사람도 주님의 뜻대로 성장시키며 최고의 기쁨으로 이끌어가시기 때문이다.

글 · 사진 김준형 기자

“예수영매를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ASE CERTIFIED 나라정비
 나라오토먼트 유류차 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월~금:8am~6pm, 토: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323.734.4881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갈라복사/갈라프린트/갈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가격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Back to the Bible

통전 Wholeness

통합 Harmony

통섭 Consilience

키아즘 구조 Chiasm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강좌 “Back To The Bible” 남가주목회자를 위한 로마서 원전강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토브성경원전연구소에서 남가주목회자들을 위한 “**신 구약 원전강해**”를 시작합니다.
 구약(TORAH:창,출,레,민,신)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히브리식 사고에 입각해 통전(Wholeness), 통합(Harmony), 통섭(Consilience)의 히브리식 사고(Hebrew Thinking)로 형성된 키아즘 구조(Chiasm)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 첫번째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로마서 원전강해]를 시작합니다.

■강사 : 강신권 목사(토브성경원전연구소 원장, 테필린 국제강사)
 ■일시 : 4월 7일(금) 오후 2시~5시
 ■장소 : 기독일보(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인원 : 20명

강사: 강신권 목사

차인표 목소리로 듣는 예수님의 말씀 “드라마 바이블”

1백여 크리스천 성우·배우 참여해 4년 작업 끝 성경 전체 녹음

무료 앱 다운로드 받아 즐거운 성경 일독 가능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드라마 바이블’이 탄생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오디오 드라마 형태로 제작한 이 ‘드라마 바이블’은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제작돼, 애플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어,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함께 들을 수 있게 됐다.

미국에서는 할리우드 크리스천 스타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The Word of Promise’, ‘Bible Experience’ 같은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도 G&M글로벌문화재단(이사장 문애란) 주도로 4년간의 연구·제작 끝에 결실을 맺은 것.

예수님 역에 배우 차인표 씨를 비롯해 하나님은 배우 한인수 장로, 다윗과 모세에 배우 이재룡·장광 씨 등이 참여했으며, 권오중(요엘), 양준모(이사야), 엄지원(에스터, 롯), 예지원(마르다), 우희진(하와), 박시은(마리아), 최윤영(마리아) 등의 크리스천 배우들도 재능을 기부했다.

또 배우 유윤선 씨와 아나운서 최윤영 씨, CCM 가수 송정미 씨 등이 시편을 낭독하는 등 총 1백여 명의 크리스천 성우·배우가 기여이 이 일에 동참했다. 배경 음악도 최고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드라마·영화 음악 감독들의 참여로 깊고 풍성하다.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서는 문애란 이사장과 제작에 참여한 배우 추상미·이석준 부부, 방송인 정선희 씨, 총괄 감독을 맡은 성우 권희덕 씨 등이 자리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제작 작업을 총괄한 문애란 이사장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이 귀한 작업에 동참해 주셨다”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그들의 소망이 모아져, 4년 만에 드라마 바이블을 완성할 수 있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했다. 박철진 목사(G&M글로벌문화재단)는 “지난 4년간 제작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린다”며 “어플은 지난 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8년에는 일본어와 중국어, 스페인어 드라마 바이블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인수 하나님 하실 말씀 많으세

여러 에피소드도 전했다. 박 목사에게 따르면 하나님 역의 한인수 장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

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의 총 대사 녹음에 15-20시간이 걸렸기 때문. 하나님 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한 장로는 “하나님 대사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다”고 했다.

이재룡-시편 51편에 계속 눈물

이재룡 씨의 다윗 녹음은 너무 감동적이고 높은 수준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새로 녹음해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이 씨는 녹음 당시 교회를 다닌지 얼마 되지 않아 신앙적 경험이 적었는데, 시편 51편을 낭독하면서 처음으로 계속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박 목사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 역할을 누구에게 부탁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차인표 씨가 맡아 주시면서 다른 배역들도 틀어 잡히기 시작했다”며 “바울은 성우 설영범 씨가 맡으셨다. ‘기도해 보겠다’고 하셔서 승낙을 얻는 데만 1-2주가 걸렸는데, 너무 신실한 자세로 임해 주셨다. 바울뿐 아니라 엘리야와 에스라도 해 주셨다”고 전했다.

박철진 목사는 “성경은 지구상에서 최고의 콘텐츠인데, 왜 읽기 싫고 어려울까 하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됐다”며 “문제는 읽는 방법에 있었다”고 전했다. 성경은 모세와 에스라를 보면 알 수 있듯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 그랬듯 원래 함께, 크게 읽도록 쓰여진 텍스트인데, 우리는 공부하기 위해, ‘일독’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읽고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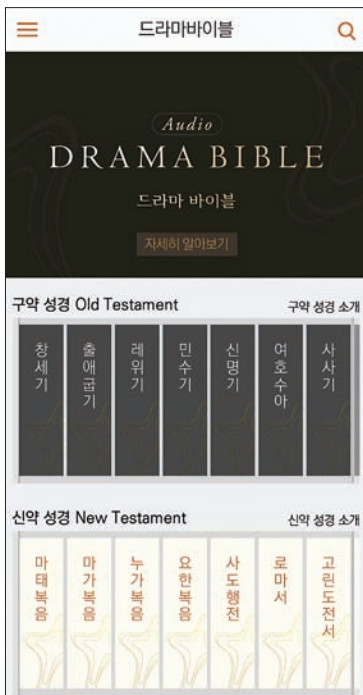
박 목사는 “교회 안에서도 설교본문을 한두 절 함께 읽을 뿐, 교독문도 요즘은 거의 건너뛰는 등 성경 읽는 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그렇다고 집에서 혼자 읽는 것은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읽다 보니 성경 읽기가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이 돼 버려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어려운 본문들은 넘어가 버리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드라마 바이블은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과 식사하듯 즐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다”고 강조했다.

권희덕-혼자 읽을 때는 쉬웠는데

이후에는 방송인 정선희 씨 진행으로 녹음에 참여한 배우 추상미·이석준 부부와 녹음을 총괄한 성우 권희덕 씨가 ‘토크’를 진행하기도 했다. 권희덕 씨는 “성경을 혼자 읽을 땐 쉬울 줄 알았지만,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



예수님 목소리 역을 맡은 차인표 씨가 녹음에 열중하고 있다. ©재단 제공



드라마 바이블 앱의 첫 화면

을 맡기셨을까’ 많이 생각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며 “성경은 문어체이고 고어(古語)가 많아 낭독하면 사극처럼 들릴 수 있기에, 현대적인 구어체로 편안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배한성-2주만 시간 달라

권 씨는 “선배인 성우 배한성 씨가 읊과 너무 잘 맞을 것 같아 굉장히 고민하다 연락드렸는데, 중간에 못 하겠다고 녹음실을 나오셨다. 사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라며 “2주만 시간을 달라”고 하시더니 다시 오셨는데, 대본이 안 보일 정도로 새카맣게 메모를 해 오셨더라. ‘어떻게 이렇게 연습을 하셨냐’고 물었더니 딱 한 마디 하셨다. ‘그러니까 50년을 하지.’ 후배들

에게 귀감이 되는, 대가다운 말씀이었다”고 전했다.

정선희-녹음하며 하나님 만나

잠언에 나오는 ‘음녀’와 신약의 ‘막달라 마리아’라는 정반대 인물을 맡은 정선희 씨는 “녹음하러 갈 때 기도가 나왔다. ‘막막합니다. 감이 안 잡혀요. 왜 하겠다고 했을까요’라고 기도하는 순간, 누가 주먹으로 확 친 것처럼 울음이 터졌다”며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20장 낭독 전이었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어져서 찾고 있고 그 가슴 타는 마음이 무자비하게 한꺼번에 훅 들어왔다. 그 배경이 전체적으로 다가오는데, 그때의 감정을 뭐라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제가 생각하고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을 드라마 바이블에서 만날 수 있었다”며 “비장하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흑백논리만 여겨졌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깨를 툭 치시면서 말을 걸어주시듯 가득했던 힘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다. 우리 안에서 말을 걸어주시고, 함께 손 잡고 계신 분임을 편하게 맞보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석준-하나님 말씀 느껴져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아합이라는 상반된 인물을 연기한 이석준 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공연하는 친구들과 6-7개월간 함께 읽어 나가면서 처음으로 성경 일독을 하게 됐다”며 “처음엔 ‘성경 일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실까’하고 꿈꿨는데,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기에 너를 들어쓰는 거야’ 하고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했다.

추상미-성경에서 인생 펼쳐져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과 사사 드보라를 연기한 추상미 씨도 “저는 현숙한 여인과 정반대의 캐릭터였는데, 요즘 석준 씨 말씀처럼 제 인생도 성경 속의 그 여인처럼 그렇게 펼쳐지고 있다”며 “성경 속 현숙한 여인은 살림에도 능하고 주변 식솔들도 잘 돌보면서 굉장히 부지런한 슈퍼우먼처럼 묘사돼 있는데,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편집하면서 각종 모임에도 참석하는 등 어느새 그렇게 살게 되니 감동이 있었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다음 주는 정기 휴간입니다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이은수 목사와 함께 하는

굿네이버스
사랑나눔 찬양콘서트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NGO입니다



일정문의 (굿네이버스 미국법인): 877.499.9898 (한국어 2번)
Los Angeles Office: 3505 Cadillac Ave M201, Costa Mesa, CA 92626

Good Neighbors



'너는 내 아들이라'의 찬양사역자 이은수 목사가 전하는 이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은수 목사

현 음악감독 및 찬양사역자(1987~) 지금까지 총 6,000여회 집회를 인도해온 현 세미나 강사, 설교자, 작곡자, 예배인도자, 방송인(1987~)
현 LA 씨에라 호스피스 원목(2015~)
현 LA Shepherd University 교수(2015~)
현 굿네이버스 미국 나눔대사(2017~)

대표곡

'너는 내 아들이라', '아베스의 기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늘의 약속',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포기하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등 다수.

태안을 도와 주신 남가주교계 감사합니다

태안 지역 목회자들 남가주 방문

“남가주를 비롯한 해외 동포 교회들의 사랑으로 그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태안 지역 목회자들이 남가주를 방문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당시 남가주교협이 교계를 중심으로 2만 달러를 모금해 전달한 일 때문이다.

당시 삼성 1호와 허베이 스프릿호가 태안 앞바다에서 충돌하며 78,918 배럴의 원유가 태안 인근 해역으로 유출돼 8천여 헥타르 상당이 오염됐다. 사고 후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가 동원돼 기름을 제거하고 각지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금했다.

당시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가 회장이었던 남가주교협도 교회들을 중심으로 2만 달러를 모금해 서해안목회자기도회를 통해 전달했다.

이번에 남가주를 방문한 목회자들은 이 서해안목회자기도회에 소속된 정정훈 목사(태안순복음교회), 이광희 목사(의향교회), 강형석 목사(고남교회), 이상권 목사(광성교회)였다. 이들은 21일 남가주교협 사무실을 방문해 함께 예배 드리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고 당시 서해안목회자기도회 총무였던 이상권 목사는 “사고 후 정부의 대책과 여러 곳에서 전달된 모금으로 수습이 이뤄졌다. 남가주



태안 목회자 초청 감사예배 및 태안 회복 10년 미주 보고대회가 열렸다.

교협에서 전달된 기금은 이런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에게 전달했다. 조국이 어려울 때 동포 한인 교회들의 도움이 큰 위로가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남가주교협은 이날 남가주교협

을 방문한 목회자들과 ‘초청 감사예배’를 드렸다. 김재율 공동회장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회복

10년 미주 보고대회를 열고 그동안의 경과를 이상희 목사로부터 전해 들었다. 또 서해안 지역 목회자들을 대표해 정정훈 목사가 남가주교협측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다.

김준형 기자

미주복음방송 신임 사장에 이영선 목사 선임

미주복음방송(GBC) 신임 사장에 이영선 목사(67)가 선임됐다. 사장 선임을 위해 마지막으로 열린 21일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6시간 회의 끝에 이 목사를 15명 후보 가운데 최종 결정했다.

이 목사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주재원으로 1981년 미국에 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가슴 아래가 모두 마비됐다. 그러나 장애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보란 듯이 그 기업의 임원 자리까지 올랐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동안 뉴저지밀알선교단 이사 등을 지내며 장애인 사역에 헌신하다가 회사를 사직한 후, 2000년 남가주밀알선교단 단장이 됐다.

그가 단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남가주밀알은 사랑의 캠프, 사랑의 교실 등 자체 사역도 크게 성장했을 뿐 아니라 특히 밀알장학복지기금을 14년 동안 무려 181만 달러 모금해 897명의 학생에게 수여하는 기업을 토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2015년 이래 미주 밀

알 총단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미주복음방송 이사 고승희 목사는 이 목사의 선임 이유에 대해 “이 목사가 단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남가주밀알이 체계를 갖추어가며 사역 현장을 넓히고 성장했다는 점과 이 목사가 LA 교계에서 신앙적으로 인정 받는 신실한 목사라는 점”을 꼽았다.

이영선 목사는 “17년 동안 장애인 사역을 하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 주 관심사였다. 삶의 희망이 필요한 이들과 사랑을 나누는 방송이 되길 원한다”고 전했다. 또 “방송에 관해 하나하나 배워가며 동포사회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4월 16일 사장에 취임한다. 그



이영선 목사
©밀알 제공

는 현재 맡고 있는 미주 밀알 총단장직 사임에 대해서는 “리더십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밀알 측과 협의 하겠다. 당분간은 겸임이 불가피 할 것”이라 밝혔다.

그동안 상근이사로, 사실상 사장의 역할을 해 온 고 목사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좋은 사장이 선임되어 인수인계 하게 되니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고승희(아름다운교회), 민종기(충현선교교회), 송병주(선한정지교회), 송정명(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임종희(설립자), 진유철(나성순복음교회), 한기홍(은혜한인교회) 목사가 참석했다. 또 최근 이사로 선임된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도 참석했고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는 최종 투표에 전화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이사회 후 송정명 목사는 이사직을 사임했고 대신 1.5세인 박영배 목사(뉴라이프선교회)가 이사로 선임됐다.

김준형 기자



행복재단이 지난 20일 창립됐다.

비영리단체 행복재단 창립돼

행복재단(Be Happy Foundation)이 20일 LA 한인타운 용수산식당에서 300여 명의 각계 인사와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마쳤다. 행복재단은 종교와 인종을 초월해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로 장애인 및 시니어, 어린이 복지 및 후원 사업, 선교 지원 사업, 재난 현장 긴급 구호 사업, 재능 나눔 사업, 한인 사회의 각종 분쟁을 중재하는 사업 등을 한다.

조선훈 이사장은 “한인사회의 특성에 맞춰 구석 구석 현장에 맞는 맞춤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이면서 입체적인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백종윤 사무총장은 “성경적 재정 원칙에 따라, 나눔이 곧 행복이라는 재단 설립 정신

을 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창립대회는 라디오 코리아 ‘아수라’의 진행자인 김은주, 한미옥 MC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박헌성 목사의 개회기도(나성열린문교회), 조선훈 이사장의 환영사, 임원 소개 및 추대패 증정, 이기철 총영사, 로라 전 LA한인회장, 임태랑 민주평통LA협의회 회장의 축사, 임청근 미국대통령 자문위원, 김해룡 6.25참전용사회 회장의 격려사, 로버트 리 안 연방하원의원 후보자의 특별인사, 바리톤 장상근의 축하, 백종윤 사무총장의 광고와 폐회 순으로 이어졌다.

행복재단은 LA한인회관 3층에 위치하고 있다. 문의) 323-870-5522

이인규 기자

사우스베이 교계, 부활절 연합예배와 통곡기도회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가 부활절 기간 두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는 부활주일 연합새벽기도회다. 4월 16일 부활주일 오전 5시

30분 토렌스제일장로교회에서 사우스베이 지역 교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종려주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원페밀리교회에서 북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포츠성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6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달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관까지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아이비 유학

3·7·21재능캠프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Shelby Kwon
Director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남가주 목회자를 위한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세미나 H. Simon의 의사결정 모델을 통해 본 변화의 구조와 과정(Change mechanism)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기독일보가 남가주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번 로마서 원전강해 세미나에 이어서 두번째로 고승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강의를 듣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제** :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 그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 **일시** : 2017년 3월 30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기독일보 (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 **강사** : 고승희 목사(아름다운 교회 담임)
- **참가비** : 무료
- **문의** : Tel(213)434-1170, (213)739-0403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전화로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 고승희 목사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이상훈 목사의 열방 이야기 11



터키 연합중보기도회와 실크웨이브미션 (2)

〈지난 호에 이어〉 김진영 선교사와 터키의 몇몇 선교사들이 기도하며 세웠던 2007년의 안탈리아에서의 연합중보기도회를 시작으로 매년 연합중보기도회는 계속되었다.

2010년 에베소 광장에서 열렸던 “에베소 연합중보기도회”에는 숨죽여 지내고 있던 터키 현지인 그리스도인들이 약 300명 터키 전역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참여했다. 전체 인원은 2000명 가량이었다.

조상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나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속 전해 온 복음서를 받아듣고 기독교 신앙을 이어온 한 80대 할아버지의 간증도 있었다. 8명의 자식들 중 단 한 아들만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서 살았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이 과연 진짜 존재하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순한 갈등을 겪어왔던 그는 이날 같은 신앙을 가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줄 몰랐으며 감격하여 울었다.

그 후로 매년 현지인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또한 외국인 선교사들도 참여하면서 ‘글로벌 연합중보기도회’로 발전했다. 이제 현지인 교회들 스스로가 자발적인 리더십으로 중보기도회를 이끌 정도가 되었다. 선교사들과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은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협력자로서의 역할 분담을 한다.

지난 10년간의 터키 연합중보기도회의 열매가 있다면 첫째,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소수의 현지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들이 담대해진 것, 둘째, 각 권역에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는 것, 셋째, 터키의 교회들과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사역하게 된 것 등이다.

김진영 선교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 선교사로서 그의 신실성, 리더십, 섬김과 겸손의 모범은 그를 아는 이들로부터 증거를 받고 있다. 그런 그와 같이 동역하는 소, 중, 대형교회 목사들이 미주의 동서를 망라하여 또 다른 선교동역을 위하여 모였다. 그 이름을 ‘교회연합(CU)’이라 했다. 이 지면에는 그들의 이름과 교회를 밝히지 못하지만 각 지역에서 모범적인 교회, 존경받는 신실한 목사들이다. 기존의 선교단체나 교회들이 못하는 선교의 틈새를 찾아 우리들이 마력이나마 선교를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하며 머리를 맞대고 지난 4년간 보이지 않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

그중 한 부분이 터키 시리아 난민 사역이다. 이 사역은 교회 개척과도 맞물린다. 시리아 난민들의 많은 수가 그리스도인들이다. 다시 말해 시리아 난민들은 교회다. 그 교회가 터키, 요르단, 이집트, 레바논, 그리고 유럽으로 이동중이다. 그들은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병기로 성장하고 있다.



소외되기 쉬운 틈새 선교를 위해 모인 선교 동역자들



제4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가 주 예수교회에서 사흘간 열렸다.

“성경적 교회는 선교적 교회다”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 소재 주 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선교적 교회 세미나를 열었다. “선교적 교회와 목회 리더십(Missional Church and Pastoral Leadership)”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캘리포니아, 테네시, 뉴저지, 미시건 등 미 전역과 아프리카 케냐 등에서 50여 명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세계화, 신자유주의 등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미주 이민교회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재확인하고 성경적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 예수교회가 2014년 시작한 선교적 교회 세미나는 올해로 4회째다.

올해에는 이학준 교수(폴리신학교), 신혁선 교수(버지니아 커먼웰

스 대학), 최병호 목사(애틀랜타 베다니장로교회), 배현찬 목사(디아스포라 사회선교회 원장), 노승환 장로(심장내과 전문의) 등이 강의를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김일선 목사(낙스빌한인교회)는 “각 교회가 처한 독특한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사실에 매우 감명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테메쿨라 갈보리교회 창립 14주년

테메쿨라 갈보리교회(담임 정용암 목사)가 지난 3월 12일 창립 14주년을 맞이해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설교는 이 교회를 개척한 최

규남 목사(그레이스미션대학교 총장)가 “당신의 신앙고백은?”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최 목사는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

커뮤니티, 교계, 선교지 섬기는 국제음악선교회

자녀 세대의 음악적 재능을 개발해 커뮤니티와 교계, 선교지를 섬기고자 국제음악선교회(International Music Mission)가 창단된다.

합창, 오케스트라, 워십댄스 등 3개 분야에서 단원을 모집하고 있으

며 회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자신의 재능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커뮤니티 봉사 크레딧도 받을 수 있다.

이 선교회의 이사장은 현 남가주

들이 모이는 신앙공동체다. 여러분은 항상 성령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교회 전화) 951-304-7749, 주소) 25771 Jefferson Ave., Murrieta, CA 92562, 웹사이트) www.tccpc.kr

교협 공동회장인 최순길 목사이며, 상임지휘자는 김동술 목사가 맡는다. 워십댄스 분야는 진영자 권사가 맡는다. 창단예배는 3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 LA연합교회(고귀남 목사, 111 N.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04)에서 드리게 된다. 문의) 213-386-0300

오픈청지기, 45개 단체에 36만6천 달러 기금 수여

오픈청지기재단의 기금 수혜단체가 선정, 발표됐다. 오픈청지기재단은 매년 지역사회를 섬기는 단체들의 사역을 후원하고자 오픈뱅크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은 올해 45개 단체에 36만6천 달러를 후원함으로 6년간 172만6천 달러를 후원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이번 45개 단체는 23일 지원금을 수령한다.

올해 선정된 단체 중에는 남가주 밀알선교단, 길갈미션, 비전시각장애인센터, 효사랑선교회, 예수사랑세계선교회, 살롬장애인선교회, 생명의원화, 율타리선교회, 물댄동산장애인선교회 등 한인들에게 잘 알

려진 기독교 단체와 한미연합회, 한인가정상담소, LA한인회, 한인타운 노인및커뮤니티센터, KYCC, 소망소사이터 등 한인단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오픈청지기 측은 “올해 심사에서도 커뮤니티의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정직하고 성실한 단체를 우선

적으로 선정했고 특히 지난해 수혜단체의 경우 지난해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김옥희 이사장은 “심사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에 필요한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픈뱅크의 민 김 행장은 “오픈뱅크는 물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모든 직원이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고 함께 뛰겠다”고 강조했다.

기독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종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교문번호사 : 정찬웅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프로지 유에스에이 특별기획!

건강세미나

세계 3대 샘물 프랑스의 “루르드 샘물”, 독일의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의 “트라코테 샘물”의 특징은 많은 양의 수소를 갖고 있는 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들의 원인을 알고 제거해 주면 건강하고 유쾌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한 물을 드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세미나에 오셔서 유익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소수

물이 미치는 우리의 건강

주제 우리 몸의 70%가 물, 어떤 물을 마셔야 하나?

대상 건강한 물에 관심 있으신 분 모두 환영

일시 2017년 3월 31일(금) 오후 2시~3시 30분

장소 기독일보 621 S.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참가비 무료(참석자에게는 천연미네랄이 풍부한 **미네랄 소금(\$20불 상당)** 1봉지씩 드립니다.

주최 : PRO-Z USA, Inc. 문의 : Tel(213)434-1170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 전화로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성취되는 성역

사도행전 13:1-1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1:19-21에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교회들의 모체로 서둘러 세워지게 됩니다. 처음에 세워지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뿐 아니라 그 후에 세워지는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의 목적과 빈틈없는 계획 가운데 서둘러 전도인을 보내시고 그 임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 주변의 택하신 백성들을 끌어 모아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진리 정통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 소망의 체질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교회로 발전했다는 사실은 세계 교회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모인 신도들은 과거에 헬라문명권에서 살면서 그들은 세상적 지혜를 바탕으로 머리를 써야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세상조건의 허망한 기대와 꿈을 스스로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그들의 인생관은 완전히 영성으로 바뀌진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살다보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거리를 달라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금식하는 기도까지 했다는 사실은 교회 역사 이래로 소망적인 모습을 최초로 보여준 것입니다.

흔히 교회들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 전달해도 당회나 제직회에서 이를 두고 왈가왈부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오만하고 불손한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회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고 피라미드형인 계통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루시고 세우셔서 가꾸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교인들 각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멋대로 할 일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허락하시고 맡기시는 일이어야 자기들이 감당해서 하나님 섬기는 보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신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보시고, 분석해 보신 결과 이들은 안디

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할만하고 그들이 파송되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쓰실만한 그릇으로의 자격이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선교사로 세우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이들은 다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인 은사와 영력을 충만히 받아 파송되어야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고 복음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했는데, 안수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에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딤후 4:14-16)” 한 것으로 보아 안수라는 것이 그저 손만 얹었다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 채워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안수함으로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어 능력을 채워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수 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 가리워진 것이 없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옵소서” 했고 영적인 선교 사업을 일거리로 주셨더니 다시 그들에게 영력을 충만하게 채워서 진리와 성령으로 완전무장 시켜 보내야겠다고 계속해서 금식기도를 했으며,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들이 기도해서 얻어진 영력을 두 사람에게 가득 채워 영적으로 완전무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온 교회가 합심하며 부르짖은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인도하심대로 선교사로서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근간에 선교라는 이름하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지만 현지에서 선교실적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선교사가 아니었고 파송한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도 선교한다는 교회적 명분만으로 내세운 선교였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입장에서 재정 대책도 중요하지만 인재 선별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선교사는 투철한 사명감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갖춰진 은사와 영력이 필요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잘 하지만 그들이 선교하는 실상은 전혀 아니라고 볼 때 아무리 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준다 해도 그곳에서는 선교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선교사의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더불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고 온갖 감동과 능력, 확신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그러다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 지역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등에 업고 여러 사람들을 속여 먹고 살아왔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있는 자로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서기오 바울을 등에 업고 살아왔던 박수는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면 자신의 신세는 끝장나는 것과 같아서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지 못하도록 훼방함으로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 박수에게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행 13:10-11)” 했습니다.

이것은 악령과 성령의 대결이며 선교를 하면서 겪게 되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대결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을 지배하는 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당 박수는 바울의 말이 끝나자마자 눈이 멀었습니다. 이로써 바보라는 지역에 복음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옆에서 그것을 지켜본 총독은 그동안 무당 박수의 신을 믿고 살아왔는데, 마음을 돌려 주님의 말씀을 기이히 여기며 주님을 따

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학생들의 입시경쟁, 기업간의 경쟁, 생존경쟁 등 자신이 살기 위해 상대방은 죽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까지 미치도록 극악무도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의 목적은 이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승리는 다릅니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신 후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끌려 다니며 매를 맞고 수모를 겪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힘없이 묶여 죽임 당하신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이기기 위하여 거처야 할 싸움의 과정이었음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한꺼번에 구속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죽음은 수천, 수만의 하나님의 새로운 아들, 딸들을 해산하는 놀라운 은혜의 과정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는 것 같으나 높아지고, 지는 것 같으나 이기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으나, 훗날 영광의 주인공으로 되어지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세상조건을 성공이나 실패의 기준으로 삼지 말기 바랍니다. 반드시 영적인 기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를 생각하고 항상 영적인 결정에 답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도 복음을 받고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여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우리를 통하여 악령의 세력은 발붙일 곳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인류복음화가 확정되어 갈수록 마귀가 발붙일 곳은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진리와 성령으로 복음화 시키는 역사를 기대하는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 사회를 복음화 시키기 위해 영적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LA 미주 복음방송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스장의사가 커뮤니티의 미래와 함께합니다

리스장학생 모집

리스장의사가 반이민 정책에 힘들어 하는 서류미비자를 비롯한 모든 한인 학생과 부모님을 위해 리스장의사와 같은 작은 기업들도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것을 알고자 장학금을 준비 했습니다.

목사님, 신부님등 사회지도자들의 추천장과 학생 본인의 현재 상황, 꿈과 희망을 담은 한글 자기 소개서를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 한 학생당 \$500, 20명에게 총 \$10,000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접수자격 서류미비자를 비롯한 한인 학생
이메일접수처 HR@leesmortuary.com
접수기간 4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발표 6월 5일 개별 통보
지급일시 6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지급장소 리스장의사 City of Orange 본사
홈페이지 www.leesmortuary.com

최저가격 보장제

-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의사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장례는 현실입니다
-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무료출장서비스

- 고인의 교회, 자택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타 장의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사카고 스미스 코코란
185 EAST NORTHWEST HIGHWAY,
PALATINE, IL 60067
아틀란타 리장의사
4067 INDUSTRIAL PARK DRIVE
NORCROSS, GA 30071

1000대 동시주차 규모의 넓고 편리한 파킹 / 아름다운 채플 / 깔끔하고 안락한 분위기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Since 1966
리스장의사
Lee's Mortuary FD1164



담임목사 청빙

아가페 장로교회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에 있으며 1976년도에 설립되어 PCUSA 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자격요건**

1. 정규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한 분
2. 5년 이상 목회경험(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3. PCUSA 소속 및 가입이 가능한 분
4.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2. 졸업증명서(대학교와 M. Div.)및 목사안수 증명서
3. 자기 소개서
4. 목회 철학과 비전
5. 최근 1년 이내의 설교 2편(CD 또는 youtube link)
6. 추천서 2통(봉인)
7. 본인 및 가족 사진 각1매

■**제출기간** : 2017년 4월 16일(일) 까지

■**제출처** : Agape Church PNC
1250 – I Newell Ave #236., Walnut Creek, CA 94596
E-mail: apcpnc2017@gmail.com

■**기 타** : 제출서류는 우편과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가페 장로교회

www.agapepc.or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담임목사 청빙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 (KCPP)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참되고 진실하며, 영성, 인성,그리고 지성을 갖추신 선교 지향적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는 1975년 창립 되어 미국 장로교(PCUSA)소속으로 '선교하는 예수 공동체'라는 비전으로 온 성도가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위해 성경적인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 **지원 자격**

1. 미국 장로교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신학대학원(M. Div.)를 마치고, 5년 이상의 목회 경험에 있으신 분
3. 한국어와 영어 사용으로 이민 목회에 불편이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1. 이력서
2. 졸업 증명서(대학교와 M.Div.) 및 목사안수 증명서
3. 자기 소개서(신앙고백, 목회 경험, 성장 배경, 가족 사진, 사모와 자녀 소개)
4. 목회 철학과 비전
5. 3인의 추천서 및 5인의 Reference 이름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와 이메일)
6. 최근 1년 이내의 설교 2편(CD또는 youtube link)

■ **서류 제출 마감일** : 2017년 4월 30일(일) 소인까지

■ **제출처**

1.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Cincinnati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
Pastoral Search Committee
5178 Steeple Chase Ct, Guildford, IN 47022
2. Kpccsteam2017@gmail.com

■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반 우편과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분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게시록에 자신의 체험적인 환상을 소개합니다. 바로 말씀을 먹은, 즉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환상입니다. 계시록 10장에서 힘 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먹으라 말합니다.

요한은 말씀의 두루마리, 곧 천사가 가져온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먹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책을 먹어버린다는 것은 책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이 나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입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요요한 송이꿀입니다. 그런데 뱃속에 들어가서는 쓰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전파하는 데는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쓰디쓴 고난을 가져온 다하여도,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불 먹은 쇠의 경우 불이 쇠에서 나누어지지 않는 것같이, 말씀 먹은 성도의 경우도 말씀이 삶에서 우리의 인격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불 먹은 쇠, 말씀의 책 먹은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갑시다. 성경책을 먹은 성도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도록 합시다.

불 먹은 쇠, 책 먹은 요한



민 중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 대장장이 노릇을 하십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사 48:10).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연단하시므로,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영적 대장장이입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손길을 통하여 새롭게 되려는 사람들은 불 먹은 쇠가 되는 것처럼, 말씀 먹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말씀으로 삶으로 배운 사도입니다. 그는 사도들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증인입니다. 노년에 이르렀던 성숙한 노 사도는

아름다운 시선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인정과 칭찬과 배려를 통해 자존감은 향상됩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우리를 사랑해 주고,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믿어주며, 우리를 높이 평가해 주는 사람들을 통해 형성됩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자존감은 고양(高揚)됩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름다운 시선입니다.

아름다운 시선은 상대방의 무한한 잠재력을 바라보는 눈길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자아는 내면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참된 아름다운 내면에 있습니다. 물론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모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아는 우리의 속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외모가 아닌 사람들 속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는 눈은 자신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바라볼 줄 아는 눈에서 비롯됩니다.

아름다운 시선은 상대방의 아

다운 미래를 미리 바라보는 눈길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직도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건축 중인 건물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때로는 흉측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축 중인 건물을 바라보면서도 아름답게 느끼는 까닭은 건물의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는 아직도 건축 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다름을 품는 능력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름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름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름을 배척하지 않고 포용합니다. 우리는 다름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을 그릇이 크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예수님을 통해 의인으로 바라보십니다. 흉측한 죄인을 사랑스럽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런 눈길을 통해 사람은 변화됩니다. 사랑의 시선은 사람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그런 까닭에 사랑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입니다. 추한 시선이 사람을 무너뜨린다면 아름다운 시선은 사람을 세웁니다.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 함께 아름다운 시선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도록 합시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해가는 교회



송 재 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로 전도와 선교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 혹은 시설 확충을 시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고민하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대안이 전도와 선교가 아니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교회 성장이 무엇이며 어떤 과정 속에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이란 성도 모두가 전도와 선교의 사

지금 이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장과 퇴보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1990년대 이후 교회들은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며 교회 성장을 위하여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그 성장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지켜보며 교회성장학자들은 현존하는 교회들이 스스로 지금까지의 모습을 과감하게 수정,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째, 현존하는 교회들의 성장이 둔감한 이유는 교회가 교인들에게 영혼구원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주위에는 너무 많은 교회들이 생기면서 교인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교회에서도 더 이상 전도와 선교가 성도들의 책임이요 의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가 교회 성장의 방안으

명을 감당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물인데 교회가 양적 성장만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란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회성장학자 맥가브란은 자신의 저서 ‘The Bridges of God’과 ‘How Much Churches Grow’에서 진정한 교회 성장이란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어 우리 안에서 잘 목양하고 그들로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가 되게 하여 그들이 사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생활을 함으로 교회들이 발전해 나아가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성장의 참된 의미 속에는 교회의 양적 성장만이 아닌 내적 성장 즉 기존의 성도들이 복음을 간증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참된 신앙의 회복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 구원의 씨앗을 뿌리며 결실의 축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활성산소 제거? 해답은 수소수!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들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독성산소, Free Radicals)이며, 수소는 그런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물로 변환되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소의 역할

- 대표적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시 라디칼과 결합해서 몸에서 배출
- 체내의 염증을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
- 미세분자상태로 체내의 모든 부분, 심지어 뇌까지 도달되어 활성산소를 제거

본 수소수기의 특징

- 1) 2중 역삼투압 방식에 의한 순수한 원수를 바탕으로 고농도(800~1,000ppb)의 수소수를 생성하며, 물의 성질은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약알카리 상태가 됩니다.
- 2) 대용량 필터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을 생산한 별도의 전해조에서 생산된 수소가스를 우리가 음용하는 물에 가압하는 침탄방식으로 즉시 물을 드실 수 있고 오랜기간을 사용해도 수소가스의 농도가 유지됩니다.



일본의 시타마대학교의 하타나 가즈미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수소농도 1,000ppb의 경우에 베타카로틴 함량 기준으로, 위와 같은 양의 항산화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항산화 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뇌 속이나 깊은 장기의 미세조직까지도 수소는 도달될 수 있으며 도달된 수소는 활성산소들을 물로 변환시키므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
독 일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 “트라코테 샘물”

세계 3대 샘물의 비밀

기적의 수소수를
가정에서 드세요!

수소수 무료 제공!
깨끗하고 건강한 물 트러쉬 오세요,
한국의 **에네스티 PLUS**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입니다.

CTP 100
\$1,390 +Tax
- 1년 필터교체 무상
- 냉, 온수 정수기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GSPH 100
\$2,990 +Tax
- 1년 필터교체 무상
- 냉, 온수 정수기



수소 보틀(1병) 구입시
에네스티 핸드크림 2개 Free
(12월 상당 시은품)



공짜

환원력이 뛰어난 수소가 생성되는 보틀

[제품특징]

- *스테인레스 필터를 통해 입차, 티백, 천연차 등 다양한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적정사용온도 : 친환경소재와 제품 변형 방지를 위해 -20도~100도 사이에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 *심플한 디자인, 친환경 트라이탄 소재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높은 휴대성으로 여행, 스포츠, 레저 등은 물론 일상에서도 편리합니다.

1병 ~~\$95.00~~ \$65.00 +TAX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 (1병 Free)
\$267 +Tax



*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프로지 골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방승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장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BAJA CALIFORNIA NATURAL SEA SALT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염장지

바하 캘리포니아 소금

바하 캘리포니아 소금의 특징

- 최적의 생산조건에서 생성된 순도 99.70%의 미네랄소금
- 중금속 0.001% 청정 천일염
- 간수 제거된 건강 천일염
- 다년간 생산과정을 거친 최상급 천일염
- KA-Kosher 인증 천일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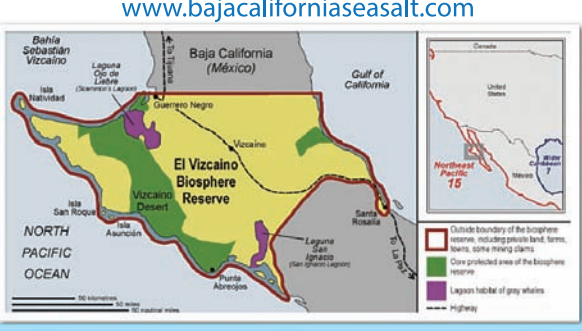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염전의 특징

- 청정해역에 위치한 깨끗한 구역
- 적은 강수량 (50mm/년)
- 강한 일조량 (2M/년)
- 년 평균 기온 (18~22°C)
- 강한 바람



성분분석 및 인증서
바하캘리포니아 천일염은 기존의 호수 수입 천일염 및 국내 천일염과 비교하여 천일염의 기능과 소비자의 선호도 또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 1봉지



www.bajacaliforniaseasalt.com

UNESCO's El Vizcaino Biosphere Reserve

에네스티 화장품

건강한 피부의 시작



이제 물에서도 당당하게!

Enesti UV/CUT SUN/BLOCK
에네스티 유브이 컷 썬블럭
워터 프루프/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
SPF 50+ PA+++ (40ml)
\$8.00 + tax

촉촉! 시어버터 핸드크림



PROTECTION FROM UVA, UVB WATERPROOF ANTI-SHINE EMULSION
Enesti 샤르르~ 시어버터 촉촉 매끈 핸드크림
초고보습 시어버터 함유 Softening and moisturizing
Net. wt. 50g \$6.00 + tax

문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

한국교회, 나라·민족·다음 지도자 위해 기도한다

교회들마다 기도회 열고 간구... “특별한 회개와 기도 필요한 때”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교회는 우리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언제나 앞장서 기도해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엡 6:12)이 아닌 ‘영적 싸움’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기도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게 모든 기독교인들의 고백이다.

분당우리교회(담임 이찬수 목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후인 지난 12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나라를 위한 일상 기도’ 캠페인 소식을 알렸다.

교회 측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이 나라를 위한 특별한 회개와 기도가 필요한 때”라며 “우리

나라의 현실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인들 개인적으로 △매일 저녁 8시 30분에 그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 △가능하신 분은 하루에 한 끼씩, 아니면 일주일 중 한끼라도 금식하며 기도할 것 △주일 저녁에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 마지막 순서로 꼭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 교회에 와서는 △교회 기도실에서 하는 30분 릴레이 기도에 동참할 것 △다락방을 위시한 교회 공적 모임을 나라를 위한 기도회로 시작할 것 등을 독려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10일)부터

금요기도회가 시작됐다”면서 “나라를 위한 금요기도회에 참석하셔서 공동체적인 회개 기도에 동참해 달라. 지금의 혼란과 가슴 아픈 현실이 나라 발전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특히 이 일을 계기로 교회가 회개함으로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나라 사랑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회 측은 교인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관련 기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한민국을 안아주시는 주님

의 긍휼과 위로가 국민들의 상처와 아픔, 상실과 좌절을 싸매어 온 나라가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깨어 있는 성도의 기도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우국충정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좋은 지도자의 복을 주옵소서” 등이다.

이 밖에 금란교회(담임 김정민 목사)도 매주 주보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독려하고 있고, 연세중앙교회(담임 윤석전 목사)는 매일 저녁 7시 30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미스바 비상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오는 24일 수원중앙침례교회(담임 고명진 목사)에서 경기지역구국기도

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예정이다.

한편,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지난 10일 극동방송에 출연해 “이럴 때일수록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다스림을 간구해야 한다”며 “정권과 국가는 다르다. 모두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도록 힘을 모으자”고 권면했다. 그러면서 “지역교회의 벽을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교단과 교파는 서로 다들지라도 주의 복음 안에서 하나되어 국민 속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여러분의 설교,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제2회 국제기독교방송미디어 콘퍼런스 개막

제2회 국제기독교방송미디어 콘퍼런스(ICMC 2017)가 ‘디지털 미션, 교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20일 분당 만나교회(담임 김병삼 목사)에서 이틀간 일정을 개막했다.

콘퍼런스에서는 <Wired church> 저자인 렌 윌슨(Len Wilson) 목사가 첫 주제강연 ‘마음과 삶, 사회를 변화시키는 메시지(Transform Hearts, Lives and Communities with Messages That Click)’를 전했다.

렌 윌슨 목사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미디어 저술가로, ‘비주얼 스토리텔링’과 ‘미디어 사역’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애틀란타 소재 피치트리교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섬기고 있다.

윌슨 목사는 “사람들이 교회로 가는 것은 ‘메시지의 질(Quality)’에 달려 있다.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심에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예배 출석의 유일한 변수는 바로 ‘설교자’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였는데, 여기서 ‘좋은 메시지’에 대해 알 수 있다”며 “이 ‘회개하라’는 그리스인들이 ‘메타노이아’라고 부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이나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전했다.

렌 윌슨 목사는 “우리는 디지털 문화라는 망망대해의 범람하는 메

시지들 속에 우리의 ‘메시지’를 함께 던져놓고,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그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윌슨 목사는 “지금 미국에서는 18%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만큼 그 숫자가 늘어나고 한국에서도 곧 그렇게 될텐데, 우리는 흔히 이들이 게을러서 예배드리러 가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들이 온라인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송의 시대에는 우리가 ‘시청률’을 따졌지만, 온라인 시대인 지금은 ‘공감 능력(Share-able)’이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리아와 여성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달려가 알렸던 것처럼, 우리의 메시지에서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온라인에서는 이 메시지를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공감 가는 메시지를 방해하는 ‘신화(myth)’에 대해 이야기했다. 창의성과 명료성,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순서 등에 대한 것이다. 그는 “우리는 창의적인 메시지를 전하길 바라는데, 창의성은 ‘훈련’에 달려 있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며 “메시지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더 좋은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윌슨 목사는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 지식(knowledge)이 곧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뜻하지 않는다”며 “정보가 많을수록 명료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는 공동체 내에서 율림이 있을 때만 좋은 것이다. 지식 자체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료한 메시지의 비법은 핵심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으로, 설교의 경우 보기 좋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못하면 공감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며 “설교를 준비하던 영상을 만들든, 한 가지만 질문하라. ‘이걸 보고 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져갔으면 좋겠는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만큼 개념이 정리되고 충분한 지식을 가진다면,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솟아난다”고 했다.

또 “공감 가는 설교는 그 메시지 자체가 좋은 이야기가 된다. 단순히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설교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며 “창의적 아이디어도 그저 많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콘퍼런스에서는 이후 달라스 제일침례교회 미디어디렉터인 브라이언 베일리(Brian Bailey)가 ‘교회 미디어가 추구해야 할 탁월함’, 김병삼 목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와 미디어’ 등의 주제강연을 발표했다.



렌 윌슨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틀간 한국내외 미디어 전문가들이 주강사로 나서는 네 차례의 트랙 세션을 통해 교회 미디어 사역에 대한 목회적 방향을 제시하고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한 모바일·SNS 등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전달했다.

주요 강의로는 ‘그래픽 디자인 기획’, ‘교회 교육을 위한 스마트한 미디어 활용법’, ‘왕왕초보를 위한 찬양팀 음향 다루기’, ‘주일학교를 위한 콘텐츠’, ‘SNS 시대의 크리스천’, ‘기독교 드라마 제작과 선교적 가능성’, ‘예배와 조명’, ‘예배 영상 제작 ABC’, ‘찬양팀 음향 세팅에 관하여’ 등이 있었다.

앞선 개회식에서 인사한 김관상 CTS기독교TV 사장은 “미디어 선교가 중요한 이때,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영적 전쟁터인 미디어 분야를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창조하신 곳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김병삼 목사는 “우리의 고민이 있

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의 언어’를 어떻게 ‘세상의 언어’로 바꿔 나가느냐 하는 것”이라며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학문, 기술 영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언어로 끊임없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숙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숙제를 지혜롭게 풀어 나가도록 미디어라는 도구를 허락하셨다”고 축하했다.

콘퍼런스를 주최한 CTS기독교TV 측은 “이제는 교회가 예배와 교육, 목회와 선교 등 전통적인 모든 사역을 시공간을 아우르는 미디어라는 플랫폼 안에서 펼쳐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이를 위해 창조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기술과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미디어 환경에 가장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세우고, 이 사역에 헌신적이고 창조적인 사역자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밝혔다. 콘퍼런스는 미디어를 통해 예배드리는 전문인 사역자들 모임인 한국교회방송기술인연합회(회장 이한웅)에서 주관했다.

이대웅 기자



Spring Cleaning
SALES EVENT

이제, 제임스 박은 엘몬테 윈 현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워런터
10년 19만 마일



2017 Hyundai Elantra SE – Lease for only \$129 per month plus tax

1 at this offer 36 month closed end lease on above average approved credit. \$1,995 cash or trade equity due from customer plus \$2,000 Lease Cash (must finance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plus \$500 Sales Event Cash equals \$4,495 total drive off. No security deposit. Lease responsible for excess wear and tear and mileage at 20¢ per excess mile after 30,000 total miles. Based on above average credit, not all customers qualify, see dealer for details.



2017 Hyundai Sonata – Lease for only \$149 per month plus tax

1 at this offer 36 month closed end lease on above average approved credit. \$1,995 cash or trade equity due from customer plus \$3,250 Lease Cash (must finance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equals \$5,245 total drive off. No security deposit. Lease responsible for excess wear and tear and mileage at 20¢ per excess mile after 30,000 total miles. Based on above average credit, not all customers qualify, see dealer for details.



다른 Dealer 가격을 가져오시면
어떤 가격이라도 Beat 해 드립니다
* 자세한 문익는 제임스박에게 전화 주십시오

James Park 213.839.3332

“Broker Deal 환영합니다”



www.winhyundai.com
3462 N. Peck Rd., El Monte, CA 91731





“사회 문제에 대한 제시하는 운동 펼치겠다”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이양호 총회장 인터뷰

지난 1월 서울복음교회(박선진 목사)에서 열린 제57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으로 이양호(67·서울 예향복음교회) 목사가 선출됐다.

이에 기독교대한복음교회의 신임총회장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신학자이며 칼빈신학의 권위자인 이양호 목사를 예향복음교회에서 만나 기독교대한복음교회의 역사 및 전망,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한 그의 고언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한국인의 교회’를 천명하며 태동한 기독교대한복음교회는 한국교회의 자랑할 만한 자산임에도 대다수 기독교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교단이다. 기독교대한복음교회의 태동과 역사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기독교대한복음교회는 1935년 시작되어 올해 82주년을 맞았으며, 한국교회가 한국인들에 의해 자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장로교인·감리교인들을 중심으로 태동됐다. 복음교회 창립 당시의 슬로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앙은 복음적이고 생명력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한국교회를 향해 복음적이고 생명적인 신앙을 강조한 것이다. 종교개혁자 루터에 의하면,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일생 동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내적 회개가 아니라 육(육망)을 죽이라는 의미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만 치우쳐 있었는데, 일생동안 새 사람이 되고 육을 죽이는 삶을 강조한 것이다.

둘째, 신학은 충분히 학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외국에서 새로운 신학의 연구가 많았지만, 한국교회는 새로운 신학적 연구에 관심이 없었다. 이에 새로운 신학 연구를 받아들이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외국의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를 통해 성경을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교회는 한국인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교단 창립 당시의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총회장님은 올해 초 2년간의 총회장 임기를 시작하셨다. 기독교대한복음교회의 발전을 위해 총회장님께서 임기 중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 혹은 방향에 대해 말씀해 달라.

“무엇보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교회원 구원을 만들고 싶다.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루고 바다에 들어가 죽은 바다를 살리는 장면이 나온다. 나무들이 살아나고 과일이 맺히는 등 온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청년실업 문제 △저출산 문제 △교육 문제 등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총회장으로서 이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했고 나름의 대안도 마련했다. 무엇보다도 교회 연구원을 설립해 석학들을 모시고 이같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싶다.

먼저 주4일 근무제를 제안하고 싶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무원, 대기업 등 약 400만 개의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4일을 근무하면 100만 개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 100만 명이 좋은 일자리를 얻고 가정을 이뤄서 자녀들을 2명씩 낳으면, 200만 명의 신생아가 더 생기면서 저출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둘째,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한 건강한 교육을 제안하고 싶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대학졸업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초·중·고등학생들 모두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에만 매달려 있다. 지, 덕, 체를 균형 있게 양육해야 한다. 대학입학시험이 아닌 대학졸업시험을 통해 장래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졸업시험제도를 도입하면 4년 동안 전공을 열심히 공부해 사회에 나가서도 훌륭한 인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초·중·고등 학생들은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양호 신임 총회장

셋째, 부부 목사제도를 제안하고 싶다. 목사뿐 아니라 사모도 목사 안수를 받아 부부가 모두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목회자 사모 아카데미를 신설해 신대원과 같은 소정의 과정을 거쳐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학의 깊은 세계를 체험함으로써 학문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졸업 후에는 남편과 함께 실력을 갖춘 목사로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된다.”

- 총회장님께서 오랫동안 신학자로서 학교에서 교수사역을 감당해오셨다. 현재 학술작업 등을 계속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된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떤 학술작업을 전개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달라.

“최근에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연구하고 있다. 루터나 칼빈은 중세 사회에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종교를 우리에게 제시해주었다. 중세 시대는 종교가 사회를 완전히 지배하는 사회였다. 그러나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종교가 사회로부터 큰 지탄을 받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 세속적이고 타락한 로마 사회를 새롭게 하는데 관심을 기울였으며, 고대의 타락한 사회를 거룩한 사회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중세 신앙인들도 겉으로는 수도사, 수녀복을 입고 있었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았다.

세상적인 세속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에는 경건하고 깨끗한 사회를 지향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경건운동이 필요하다. 기독교가 끊임없이 새로운 샘물을 흘러보내어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데 공헌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정신적인 운동을 일으키고자 한다.”

-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예언자적인 권면 혹은 통찰을 나누어 주시길 바란다.

“칼빈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성직자부터 평신도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자신을 희생하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온전히 다 지키며 살지는 못한다 해도, 산상수훈 말씀을 사랑하면서 이 같은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대 교회의 법과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 헌금의 절반을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나누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교회는 헌금을 최소한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나누어야 한다.

한국교회가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양호 신임 총회장?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신학자이자 칼빈신학 권위자이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원장, 한국교회사학회 회장, 한국칼빈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하였다. 강혜진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2:45
주일예배 오전 11:20
영광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2:45
주일예배 오전 11:20
영광교회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피치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1부예배 오전 7:4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생명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나누는 교회, 영적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예배 오전 10: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c.us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일복합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 isaacdc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초월 소, 천 초 정신의 초월, 바른교회관의 초월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감사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저녁 8:00
주요성경공부: 저녁 8:00
주요성경공부: 저녁 8:00

강양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213)465-9693, (213)434-1083 www.new2011.org

주일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11:20
3부예배 오전 12:45
주일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주일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주일예배1부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예배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전도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마음, 몸,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시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령과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종교동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윙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김성원** 담임목사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50 S. Rosemead Blvd., Pasadena, CA 91107
T. (626) 872-2405 교회, (503) 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알렘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9시 (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송재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일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대홍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상훈** 담임목사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권오국**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세교구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방수민**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박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새벽 해마 기도회 오전 5:30 (월-금)
EM/YOUTH 예배 오후 1:30 금요일메가기도회 오후 7:45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2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웅철**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훈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문/서/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DCMi가 네팔 선교를 위한 기금 마련 음악회를 준비 중이다.

“네팔에 희망을” DCMi 네팔 선교 콘서트 연다

4월 1일 오후 6시, 웨더럴웨이제일장로교회

DCMi 선교회(대표 정태희 목사, David Chung Ministries International)는 네팔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 오는 4월 1일(토) 오후 6시, 웨더럴웨이제일장로교회(담임 최병걸 목사, 3225 S. 288th St. Auburn, WA 98001)에서 선교 기금 마련 콘서트를 개최한다.

DCMi 선교회는 작년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3개년 교회 지도자 개발 프로그램인 호프 포 네팔(HOPE FOR NEPAL) 선교 프로젝트를 시작해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해 교회지도자들의 개발과 교회들의 연합을 도모하고 있다.

DCMi 선교회는 선교 기금 마련 콘서트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방 종교의 거짓된 교리로 고통 가운데 있는 네팔 국민들에게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한다”며 “부디 이 귀하고 의미 있는 사역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네팔 카트만두 기독교회 연합회 회장으로 기자 회견에 참석한 텍 다할(Tek Dahal) 목사는 “네팔은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힌두교도이며,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불과 0.5%-2% 미만인 대표적인 미전도 국가로, 그 어느 나라보다 복음이 필요한 땅”이라며 “네팔의 복음화는 곧 사회를 변화시키고 네팔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 나라의 소망”이라고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텍 다할 목사는 이어 “DCMi의 네팔 교회 지도자 개발 프로그램으로 네팔 교계가 하나되고 있다”며 “지도자 개발 훈련이 끝나면 사역자들이 네팔의 5개 행정구역으로 뿔어나가 네팔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Mi 선교회 정태희 목사는 “네팔 교회의 연합과 부흥이 네팔 사회를 변화시

킬길 기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심은 씨앗이 5년 후, 10년 후 네팔 사회의 각 분야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네팔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정 목사는 이어 “네팔 선교 기금 마련 콘서트는 단지 기금을 마련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네팔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그 나라의 백성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아직도 핍박이 만연한 네팔 교회의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훈련하기 위해 리더급 목회자 200명을 호텔에서 교육하고 섬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DCMi 2018년까지 매년 3번 차례 네팔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해 지도자들을 개발하고, 마지막 해인 2018년 봄에는 카트만두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 한국의 여의도 집회와 같은 카트만두 복음전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태희 목사는 “DCMi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방 신이 가득한 땅에서 놀라운 기적과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며 “네팔 선교 프로젝트를 네팔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한 영혼을 넘어 사회와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소중한 사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달이면 네팔의 정신적 지도자 한 명을 섬길 수 있다”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네팔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전했다.

네팔 선교 기금 마련에 동참을 원하는 교회나 단체, 개인은 전화 253-332-7757 또는 이메일 davidchung.us@gmail.com, godcmi@gmail.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모든 헌금에 대해서는 세금 정산을 위한 영수증을 발급한다.

브라이언 김 기자



그림 일대일 양육 세미나

애틀랜타교회협 그림 일대일 양육 세미나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송상철)가 주최하고 애틀랜타목사회(회장 오희수)가 주관한 ‘그림 일대일 양육 세미나’가 지난 14일(화) 새한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애틀랜타 지역뿐 아니라 샬럿, 어번, 존스보로, 웨이트빌 등에서 4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림을 통해 쉽게 복음을 전함으로 균형 잡힌 신앙의 성장을 돕고 나아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품어야 할 비전과 삶의 방향을 제시함으로 삶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세미나 강사로는 송상철 교협회장이 나섰으며 말씀, 기도, 교회의 본질과 비전, 베푸는 삶, 예배, 선교 비전과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강의했다.

송상철 목사는 “새한교회는 세미나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골격을 잡아 줄 수 있어 복음 중심의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 교인들이 이 교재를 통해 전도를 하고 특히 새신자들이 세례받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새한교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비신자 80여 명을 포함해 총 250여 명을 전도했다.

송 목사는 “그림 일대일 양육 세미나는 일반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쉽게 교회에 적용할 수 있고 성도들이 무리 없이 잘 소화해 교회의 큰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 우리가 전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목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수영 기자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비잔틴 교회 ©FIM국제선교회 제공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 ‘이슬람’

금세기 말에는 기독교 인구 추월할 듯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는 이슬람이며, 이슬람이 곧 기독교를 추월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7일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이슬람은 세계 전역에서 성장하고 있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금세기 말에는 기독교인 수를 넘어설 뿐 아니라 전 세계 인구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유일한 종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전 세계 인구의 약 25%를 차지했던 무슬림은 높은 출생률로 인해 2050년에는 유럽 인구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로 바뀔 것

으로 예상됐고, 미국에서는 무슬림 인구가 유대인을 추월할 것으로 조사됐다.

퓨리서치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 1인당 평균 2.3명의 자녀를 출산하지만, 무슬림 여성은 평균 3.1명을 출산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 내 무슬림 이민은 정치적 논쟁이 되고 있으며 극단적인 테러 단체와의 연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슬람 전문가인 유해석 선교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테러 성향이 있는 이슬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추진한 이유는 미국에서 이슬람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멕시코에서 교회 재산 강탈 및

기독교인 납치 자행

오픈도어즈 “박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멕시코 내 기독교인 박해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13일(현지시각) 오픈도어즈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내 기독교 공동체를 상대로 한 강력한 마약 조직들의 박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 조직들은 교회나 기독교 기업을 비롯한 기독교 공동체를 상대로 무거운 세금을 매긴 후 세금을 내지 못하면 강제로 문을 닫게 하고 있다.

멕시코 오픈도어즈 데니스 페트리는 “마약 조직의 교회 재산 강탈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며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약 조직들은 수익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기독교인 납치까지 일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때로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공격도 발생한다.

오픈도어즈는 “마약 조직이 기독교인들의 예배와 모일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픈도어즈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며, 일부 교회는 이들의 명령에 의해 강제로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 일부 교인들은 예배 출석을 금지당하고, 특정한 교회에 참석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게다가 마약 조직과 싸우는 자경 단체들의 폭력과 위협 때문에 교회는 이종교를 겪고 있다.

한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오픈도어즈와의 인터뷰에서 전직 마약 밀매상이었던 자경단원들로부터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자경단원들이 몽둥이와 칼로 나를 위협했다. 교회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면 죽이겠다고 겁을 주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목회자는 “마약조직은 매우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모든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 아무도 혼자 다닐 수 없으며 항상 보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마약 조직에 대한 비판을 할 수가 없다.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월에는 2명의 멕시코 목회자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

멕시코는 미국 오픈도어즈가 매년 발표하는 박해국가순위에서 4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강혜진 기자

무슬림 박해 속에도 중동 기독교 성장

중동 지역의 기독교 박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무슬림들의 개종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다. 이슬람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경우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많은 무슬림 난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에 나타나 자신을 돕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다”고 고백한다.

미국 USA투데이는 “레바논 난민 캠프의 수많은 시리아 출신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고 전했다.

레바논 시리아정교회의 조지 살리바(George Saliba) 사제는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후 약 100명의 시리아 난민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전했다.

기독교로 개종한 시리아인인 아부 라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년 전 꿈에 나타나셨다. 그 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구원하시기 위해 나타나셨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돌아온 그는 사형

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교회 가는 길에 지인의 칼에 찔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에서도 수많은 무슬림 난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으며, 유럽 내 교회 참석자들의 수도 동시에 늘고 있다. 베를린 인근에 소재한 트리니티 교회 새신자 수는 150명에서 700명으로 증가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무슬림들, 특히 이란 무슬림들은 기독교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동 지역 난민들을 위한 기독교 방송국 SAT-7의 설립자인 테렌스 애스코트는 “무슬림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에 녹아 기독교로 개종한다”면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이 무슬림 세계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는지 놀라울 정도”라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300 세계전선을 이루는 성령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발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월-금 5:0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 363-5887

LA에베레츠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83

최 혁 담임목사


주안 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일전날아침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다름날) 7:00am
화요일중기도회 7:00pm 토요일전날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예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아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 (562) 691-0691 F. (562) 691-0698 / nachimbans.org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학교 11: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토요일 6:30 AM
금요찬양예배 7:30 PM

이원준 담임목사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새벽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금부 자비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허귀암 담임목사


놀익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562) 802-4959 C. (714) 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EM주일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시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 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여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민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9:00 P-kinder(Korean)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엑스프레스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 250-1111 / www.beautifulch.com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일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C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여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염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일성경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주희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F. (714) 252-9190 www.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일성경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 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 217-5558

주일 성령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일기도회: 금요일 오후 6: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www.sellacare.com

Congratulations!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샵 **입점** 고려대 안암병원내 샵 **입점**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심장, 뇌 혈전 용해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품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싶다면 **혈액순환, 혈관건강**부터 지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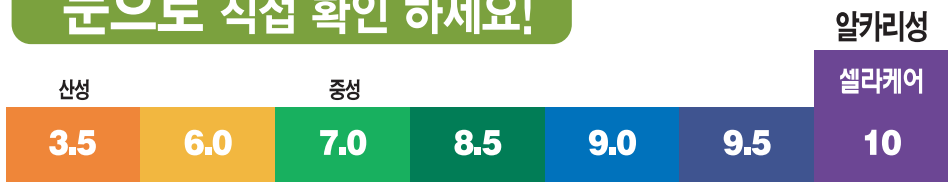
- 혈 관 성 치매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식품 섭취하여 혈관성 치매 예방
- 뇌 졸 증 기름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피하고 섭취함으로써 뇌출혈 예방
- 동맥경화 평소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복용하여 신체의 혈관청소에 도움 줘야
- 고지혈증 음주를 자제하고 수영, 등산 등 운동과 함께 혈액혈관 영양제 복용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양제

- ✓ **100% Organic** (유기농)
- ✓ **Non-GMO** (유전자조작 無)
- ✓ **All Natural** (순수천연)

-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 5 소비자의 재구매 확률이 높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셀라케어 제품은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의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본사(LA)	213.435.9600	현대약국 (웨스턴+5가)	213.480.3322	세리토스 파이오니아약국	562.402.6972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다운타운 산페드로	213.765.9677	LA시온마켓 엄마손약국	213.739.303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얼바인	949.330.9009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국제건강가족동호회	213.382.9714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텍사스 (Nature's Gift)	972.280.9006
시온약국	213.344.9730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웁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발보아 약국	818.831.2090	로렌하이츠	626.912.5727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그린랜드 건강헬스(그린마켓 내)	626.839.2868	하와이 (생약촌)	808.947.808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부에나파크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캐나다	604.872.166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든그로브 만미당약	714.333.7866				
LA벌몬 마틴약국	213.382.9718	가든그로브 한성한의원	714.638.5100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세리토스 패밀리약국	562.402.0500				
LA 5가버지 그랜드약국	213.380.5103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한국총판 010.6503.0191

서울혜화동 서울대병원 본원내 02.2072.1579 / 암센터내 02.2072.7565

서울고대 안암병원내 2층 02.928.9580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내 031.719.9589



헬라에서 로마시대에 사용한 판 신전과 옛 신전들의 흔적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27)

위대한 신앙고백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의 역사

헬라시대(BC322-BC165)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헬라문화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종교문화이다. 헬라사람들은 섬기는 신들이 너무 많아 “모른다”라는 이름을 가진 신도 있었다 한다. 헬라인들이 유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와서 신전을 짓고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함으로 발생한 것이 유대교와의 충돌이었고 그 절정이 마카비 형제의 항쟁이다. 헬라는 유다 마카비 형제에게 패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서서히 물러가게 되지만 신들을 섬겼던 장소에는 여전히 신들의 형상이 남아있게 된다.

오늘날에 바니아스(Banias)라 부르는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시대에 지어진 이름으로서 당시 로마황제 칭호인 가이사라와 유대 분봉 왕 헤롯 빌립보의 이름이 결합하여 생긴 것이다.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로마 총독부 가이사라와 잘못하면 혼동이 될 수도 있다.

헬라시대에 그 많은 신들 가운데 판 신(Pan, 목양 신)이 있었고 이곳에서 제사가 드리지므로 이곳의 지명이 파니아스(Paniyas)가 됐다. 파니아스는 후대에 아랍인들에 의해 바니아스로 변형되어 불리게 된다.

헬라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신들을 만들었지만 일부는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곳은 헤르몬 산의 눈과 비가 녹아 땅속에 스며들어 생긴 물 근원지의 출발점이다. 곧 요단강의 발원지중 하나인 것이다. 아마 물과 조장이 판 신전

을 만든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 로마시대에 빌립보에 의해 거대한 로마식 도시가 건설되었고 이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빌립보 분봉 왕의 수도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위대한 신앙고백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어느 날 이곳에 도착하셨다. 많은 물이 쏟아져 내려가고 햇살은 따뜻하게 비추는 그 날 한가로운 물살을 더듬으며 오후를 즐기려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갑자기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어리둥절한 가운데 이렇게 대답한다. “주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하던데요!” 아쉬운 대답에 주님은 재차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인식이 아닌 제자로 가까이 따라다닌 너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밖에서 주님을 본 사람들이야 당연히 기적이나 병 고침, 권세 있는 말씀 등을 통하여 위대한 선지자 중의 하나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도대체 인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주님의 마음에 시원한 대답이 베드로를 통하여 나온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임니다”(마16:13-20) 많은 신들이 섬겨진 장소에서 참 신이 누구이며, 많은 선지자가 오고 갔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 하는 소위

기독론, 메시아론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님은 선포하셨다.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이 위대한 신앙고백도 개인의 능력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마가복음은 8장 27절 이하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조명하고 있다. 베드로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간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앞서 베드로의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고백 차원이 아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자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선교회

들은 포장하기를 좋아하지만 주님은 진심으로 믿는 것을 좋아하신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베드로를 제1대 로마교황으로 섬기면서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섬기는 것같은 인상을 준다. 주님이 그 현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자. 베드로의 고백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 위에 세워진 것이다.

베드로와 열쇠 두 개

누가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열쇠를 두 개 주었느냐’고 말하는 자들에게 답하기를 ‘한 개는 천국에서 매고 풀고, 하나는 땅에서 매고 풀기 위함’이라 한다. 어쨌든 사람

들은 포장하기를 좋아하지만 주님은 진심으로 믿는 것을 좋아하신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베드로를 제1대 로마교황으로 섬기면서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섬기는 것같은 인상을 준다. 주님이 그 현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자. 베드로의 고백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 위에 세워진 것이다.

가이사라 빌립보와 신전들

오늘날 바니아스는 이스라엘의 국립공원 중의 하나로 되어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순례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순례객들은 주차장에서 내려 로마시대 유적 일부를 보며 물가로 나아가 판 신전과 제우스 신전 터 등을 둘러보게 된다. 신전 터에서 보는 시냇물도 아름답다. 너무 조금하게 장소들을 둘러보지 말고 천천히 말씀을 음미하면서 걸어보았으면 좋겠다. 조금 시간이 있다면 물가를 따라 폭포까지 내려가면서 로마도시의 모습과 십자군 시대의 등의 유적지를 보면 좋을 것이다.

판 신전과 로마 신전을 발굴한 사람은 테찌 마오즈 박사로 이스라엘 고고학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판 신전은 높이가 40m, 길이가 70m 정도 된다. 절벽 중간에 바위를 조각하여 신전을 모양을 만들었다. 로마시대에는 판 신전 밑으로 제우스 신

전을 만들어 이 지역을 신전 터로 계속 사용하였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 구약시대에는 바알 갓(수 11:17), 바알 헤르몬(삿3:3)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바알은 주인(lord)을 의미한다. 바알은 신의 우두머리인 엘 신의 아들, 또한 후계자이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북방 하늘에 있는 높은 산에 보좌를 베풀고 가나안 신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가리켜 하늘의 주(The lord of heavens)라고 불렀다. 하늘의 비와, 땅의 풍경을 주관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천둥소리를 바알의 음성이라고 믿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세상에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했다.

가이사라 빌립보를 떠나며

아무 것도 없는 절벽 틈 사이에서 물이 솟구치는 것을 보면 경이롭기까지 하다.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물의 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손을 담그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은 이곳은 정말 이스라엘의 젖줄의 근원이다. 시원하게 내려가는 물들을 바라보며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오늘날 베드로의 후예들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해 본다.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들이 이 도시 저 도시에서 들불처럼 번지기를 소망해 본다.

(계속)

2017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지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2(31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발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ceunmaster@gmail.com

충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 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 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국의사랑

한의원 Zo'e 조애

Tel: (213) 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 (8th & Lake St.) (일수토 예약 필수)

2017 CD PRINTING 문의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교화성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신년맞이 패키지
(8인치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다자전free)

10,000장 이상 주문시
A형 스탠드배너
\$160 (다자전 포함)

사망의 동상 교회
\$140 (다자전 포함)

Stand X-Runner \$65
Retractable Banner \$140

시티보험 자회사 CA Lic. #0156071
실버시티보험

올해 65세
되십니까?

메디케어 신규보험 가입 & 변경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Part C) ■ 메디케어/메디칼 (변경기간 상관없음)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 메디케어 선택 등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문의 상담 213-321-0302 Connie Kim (김경미)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 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팔짚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현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통증
✓ 발가락 퇴행성 관절통증
✓ 마디관절 손목, 발목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3달분 \$6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에트레벨
être belle
Made in Germany

! 피부 회복력 강화 시스템!
24캐럿 골드와 꿀의 환상 조합!

피부 세포
재생 솔루션

G/O/L/D/E/N/S/K/I/N

클렌징부터 마무리 크림까지 느낄 수 있는 24캐럿 골드 트리트먼트

1) 눈가 쿨링 효과와 풍부한 영양공급으로 뛰어난 피밍 효과로 건강한 눈매로!
2) 자외선이 강한 오전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 탄력을 향상!
3) 밤 사이 충분한 피부 휴식과 영양을 채워주어 피부 컨디션을 회복!

■ 골든 스킨 케어 세트
Golden Skin Care Set

골든 스킨 아이 젤 15ml
골든 스킨 데이 크림 50ml
골든 스킨 나이트 크림 50ml

3종 세트 \$256 + tax

나이트 크림 50ml
데이 크림 50ml
아이 젤 15ml

■ 바이오크어 트리트먼트 캡슐
TREATMENT CAPSULE

한알의 파워! 블랙캡슐
독일 제약회사의 기술력 바이오크어
TREATMENT CAPSULE 50ml
\$49 + tax

미백효과
탄력개선
주름개선
항산화
안티에이징
혈색개선

■ 금빛으로 빛나는 골드 캡슐
CONCENTRATE PURE SERUM

금빛으로 빛나는 골드캡슐로
잃어버린 피부의 빛을
찾아 드립니다.

주름 미백 기능성 화장품

주름개선 미백 생기공급 수분

CONCENTRATE PURE SERUM 35ml
\$41 + tax

■ 골든 스킨 아이 롤-온
Golden Skin Eye Roll-on

휴대가 간편한 젤 타입의 아이 롤-온

탄력
피부결
수분공급
눈가 생기

Golden Skin Eye Roll-on 10ml
\$34 + tax

■ 선 크림 + 애프터 선 로션
Sun Cream + After Sun Lotion

Sun Cream + After Sun Lotion 75ml+75ml
\$44 + tax

선크림과 애프터 선 로션 패지키 상품으로 선별력을 차단해주며
햇빛으로 인해 자극 받은 피부 진정까지 한번에 가능한 제품.

프로-Z USA Inc.
프리지 유에스에이

문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100, LA, CA 90005

● '구약에서 길을 찾다' 에세이 공모전 대상작

이스라엘신학 정립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관하여 (1)

지난해 10월 기독교일보가 주최하고 UBM교회가 주관해 열린 ‘구약에서 길을 찾다’ 에세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최재환 학생(게이트웨이신학교 M.Div.)의 글 <이스라엘신학 정립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관하여>를 네 번에 걸쳐 연재합니다. - 편집자 주

이스라엘신학의 필요성

“이스라엘신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약신학도 아니고 이스라엘 종교의 역사신학도 아닌 구약에 관련된 새로운 신학의 출현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구조적 관점에서 본다면 용어 자체로서는 새로운 출현이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신학”이란 용어가 새로운 개념으로 들린다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은 아니다. 다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미지의 새로운 신학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 필자가 연구하며 이해한 “이스라엘신학”이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 계획의 원 목적 안에서, 배제되었고 잊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원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고 수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구약신학의 일차적 관심은 명백하게 야웨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기독교 교리 신학이 기대하는 바들에 쉽게 들어맞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헬라 전통의 철학적인 카테고리들에도 쉽게 들어맞지 않는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대부분의 개념들로 구약의 하나님을 규명하고자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야웨 하나님에게 보다 근접하게 다가가고자 한다면, 현 시대의 주류 사상 격인 헬레니즘의 이원론적 사고의 틀에서 잠시 벗어나 일원론적인 히브리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성경을 어떠한 편향성도 갖지 않고, 조심스럽게 읽게 되었을 때, 드러나는 사실 중 하나는 구약의 신학적 규명이 기존 교회의 공식적 선언에서든, 아니면 보다 인기 있는 성향에서든, 현대의 대중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신앙과 잘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약의 신학적 증언 속에서는, 현대교회신학이 접해보지 못한 거칠고도 길들여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수용된 현대교회신학은 이런 문제에

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 래서인지, 성경에 관해서 안정과 확신을 제공하는 데만 주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을 제공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교회 역사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성행한 “대체신학”이다. 이 신학 체계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언약을 폐지시키고, 대신 교회에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의 선택된 도구로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끝이 났고 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해석인 것이다. 그리고 20세기 마지막 25년 이후로는 “실현된 종말론”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이 신학 체계에 따르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천국은 교회에서 실현되고, 천국의 완성은 아직 미래의 일로써, 천 년 왕국이나 종말에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시간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 대체신학은 현재 검토가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져 있었을 때는 대체신학의 주장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였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 땅에 모이게 되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계시란 측면에서 더 이상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을 배제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그들이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되찾고 언약 국가로서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재등장 하는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1980년 교황 바오로 2세는, 공식적인 유대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대인의 신앙을 “하나님에 의해 결코 한번도 철회된 바가 없는 언약”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제2회 바티칸 공의회 선언들은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이 동등한 신앙인임을 인식하는 쪽으로 서서히 움직여 나아가갈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본다. 이런 점 등에서 실제적인 반 유대 사상을 만들어내는 신학적 구약 교제설, 즉 대체주의신학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문제가 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옛 언약의 본질 자체가 새 언약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옛 세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체결한 선택된 민족으로서, 육체에 할례를 받고 동시에 마음에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최 재 환 학생
게이트웨이신학교
M.Div. 과정

로 구성되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과 구원 계획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면, 먼 훗날 언제일지 모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 때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그들이 받은 언약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인가? 우리는 먼저 그들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그들이 지닌 자생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야웨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에 따른 행위로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선택된 민족이자 나라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언약 파트너로 선택하셨으며, 그 결과로 인해, 이스라엘은 야웨 하나님의 기대에 반응하고 부응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파트너로서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파트너인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야웨 하나님께 적응하여 사는 일로 구성되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타협할 수 없는 목적들과 명령들에 적응하여 살 뿐만 아니라, 함께 임재하시고 때로는 부재하시며, 의롭기도 때로는 의심스러운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격들에 적응하여 사는 일로 그들의 삶이 구성되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이 다른 민족들의 삶과 달리, 때로는 손해를 가져오고 때로는 이익을 가져오기도 하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신명기 4:7-8 은 구약 시대의 수많은 나라들과 달랐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당시의 나라들 중 어느 부족이나 나라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그렇게 결집된 집단은 감히 없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철저하게 야웨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언약 목적에만 부합되도록 살아갔기 때문

이다. 또 다른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의 예로 “거룩한 전쟁”을 들 수 있다. 폰 라트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 행위에 의해 그 적법성이 부여되고 제사 행위에 의해 명령되어지는 군사적 행동의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란 가설을 세운바 있다. 이 때 여기서 나타나는 “거룩한 전쟁” 개념이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 아닌 그 반대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야웨 하나님에 대한 것이 올바른 설명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인근 국가들과 부족들 중, 특별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특수성에 힘을 더해준 것은 그들 특유의 성격이나 특성이 아닌, 바로 야웨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삼하 7:22-23참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민족으로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일까? 과연 이스라엘은 그 특유의 독특성을 지켜 나감으로써 어떠한 소망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실 복리, 바로 “살롬”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훗날에, 야웨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프랑스의 신학자 에드몽 자콥은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구약성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개념들을 제공하지 않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행동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자신의 초월성을 버리고서 자신의 운명을 자기 백성의 운명과 연결시키며 그 백성을 통하여 인류 전체의 운명과 연결시킨다.”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개념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운명과 연계시키고 그 민족을 통하여 인류 전체와 연계시키려고 초월성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과 관련하여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며, 다음으로 모든 피조물 및 다른 민족들과 관련되어 온 천지 만물을 포함하는 구원에 대하여 이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명기 9:4-7 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합적인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대리

자로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네 하나님 야웨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야웨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야웨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야웨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야웨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야웨를 격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야웨를 거역하였도…”

또한,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내용 중에는 바로 인류 구속을 위한 새로운 목적이 표현되어 있음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 계약을 말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 시작되었던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나라에 대한 축복을 담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약속은 힘겹고도 위험한 상황 속에서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약속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이어졌는데, 이 때 충실히 선대의 언약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특별한 힘을 동반할 수 있었다. 이 약속의 핵심 선물이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축복”이다. 히브리동사로서 “축복하다”는 창세기 네러티브들 안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영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새로운 삶이란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나라들에게 전수되어야 하는 삶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 능력이 모든 나라들에게 전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결을 통해 이스라엘은 수단으로서의 중요성과 책임성이 부여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 즉 열방은 목적으로서 그들의 삶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실제화 되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계속>

여기, 베일에 감춰진 미스터리한 한 남자가 있다.
다윗마저 부끄러움과 동경으로 얼굴을 붉게 하였던 한 남자,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오해되었던 언약궤를
목숨 걸고 모시는 자원적 헌신으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남자, 오벤에돔!**

스펙터클한 내러티브와 깊은 신학적 통찰, 현실감 있는 신앙 적용!
한 번 읽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그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신앙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오벤에돔

— 소강석 지음 —

288면 / 12,000원

생명나무 장로

[서광수 지음]

248면 / 11,000원

죽음과 같은 인생의 절망과 처절한 고난의 절벽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잘 섬겨
변화된 신비하고 놀라운 축복의 서사**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대학교 총장에 오르기까지
그가 경험한 생명나무 신앙과 신정주의 교회론의 비밀
**분열과 다툼으로 신음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는
생명나무 장로의 뜨거운 연서**
그를 만나면 절망의 문이 닫히고 희망의 문이 열린다!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신간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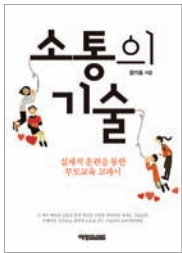
구름이 이끄는 곳으로
이명규 | 마음지기 | 272쪽

제대 후 신대원 복학을 준비하던 어느 날, '세상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기도조차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안타까움이 몰려왔고, 8개월 동안 23개국을 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선교여행을 계획했다. 그 계획은 2년 8개월 간 18개국을 도는 여정으로 이어졌다. 책은 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걸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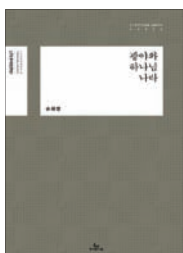
소통의 기술
강기호 | 예영 | 148쪽

좋은 부모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고 저자는 강조한다.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 10개 훈련 주제를 중심으로 탐구하고, 참고도서 두 권을 함께 소개한다. 책을 읽으면서 구체적인 실습을 하는데, 훈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얻을 수 있다. 함께 읽는 두 권의 책은 기존 개념을 새롭게 할 것이다.



광야와 하나님 나라
손희영 | 성서유니온 | 212쪽

‘하나님 나라’를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곳 정도로 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괴리된 삶을 살거나, 세상에서의 성공을 복 받은 증거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자는 잘못된 기대와 신학으로 어그러진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안은 예수님이 시험받으신 광야. ‘LTC 주제 강연 시리즈’ 첫 번째 책이다.



인생 여행
진재혁 | 생명의말씀사 | 208쪽

인생이란 ‘주님과 손 잡고 가는 여행’이다.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상황과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으로 비유해 세상, 나, 꿈, 친구, 갈등, 배우자, 자녀, 고난, 원수, 스승, 스트레스, 기적, 죽음 등 13가지 만남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저자는 이러한 인생의 모든 만남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삶이 달라진다고 강조한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일본을 이해하는 패러다임을 생활방식에서 찾다

탁월한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1887-1948)는 학문적 여정이 끝나가던 1946년, <국화와 칼>을 내놓았다. 이 책은 1944년 6월 미국 정부의 위촉으로 연구한 것인데, 전시 상황이라 저자 자신은 일본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

이광규(서울대 명예교수, 인류학)에 따르면, 베네딕트는 <국화와 칼>이라는 제목을 통해 일본 사람들의 이중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이 책의 장점은 학문적으로 위대한 저작이지만, 난해하지 않고 유려한 문체로 복잡한 사상을 쉽게 풀어냈다는 점이다.

베네딕트는 이 책에서 평균적인 일본인의 행동과 사고의 틀을 탐구

했다. 제1장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일본인은 미국이 지금까지 전력을 기울여 싸운 적 가운데 가장 낯선 적이었다.” 미국은 ‘서양의 문화 전통에 속하지 않는, 완전히 무장되고 훈련된 국민’과 싸웠던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일본인은 최고로 싸움을 좋아하면서도 암전하고, 군국주의적이면서도 탐미적이고, 불손하면서도 예의바르고, 완고하면서도 적응력이 있고, 유순하면서도 시달림을 받으면 분개하고, 충실하면서도 불충실하고, 용감하면서도 겁쟁이이고, 보수적이면서도 새로운 것을 즐겨 받아들인다.

제2장의 제목은 ‘전쟁 중의 일본인’이다. 일본은 당시의 전쟁을 다



국화와 칼
루스 베네딕트
윌유문화사 | 416쪽

른 방식으로 규정했다. 일본의 정치가와 군인들은 “이 전쟁은 군비의 싸움이 아니라 미국인의 물질 신앙과 일본인의 정신 신앙의 싸움”이라

는 말을 되풀이했다. 일본은 정신력이 반드시 물질력을 이긴다고 부르짚었다. 일본인에게 명예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었다. 절망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일본군은 최후의 수단 하나로 자살하거나, 무기 없이 적진에 돌격하여 집단 자살을 해야 하며 절대로 항복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집은 정연하게 정돈되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어린아이는 그것을 존중하도록 배운다. 아이는 아버지에게 언제나 존경의 태도를 나타낸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높은 계층적 지위를 대표하는 훌륭한 모범이다.

그리고 일본인은 어떤 개인이나 국가가 다른 개인이나 국가에 모욕

을 주는 것은 비방, 조소, 모욕, 경멸, 불명예의 징표를 강요할 때라고 인식한다. 일본인은 자신이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복수하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다.

이 책은 일본인의 보편적인 특성을 그들의 생활방식에서 검토한 책이다. 저자는 일본인은 어떤 경우에 예의를 지키고 또 지키지 않는가, 어떤 경우에 수치를 느끼고, 어떤 경우에 당혹감을 느끼며, 자기 자신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는가 등에 관해 기술했다. 이 책은 일본과 일본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고전적 가치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주님미디어 새해맞이 이벤트

2017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패키지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성령축제

개원기념

문예대포함

인쇄사 박성근

각종의 사랑으로 화여 합니다

Stand X-Banner \$65

거치대포함

*사이트에서 샘플선택

Retractable Banner \$140

길로이 사랑의 교회

사랑의 동산교회

160 (디자인 포함)

A형 스탠드배너

2017 NEW YEAR EVENT

말씀 액자

16x16inch 기준

\$35

*주님미디어에서 직접 쓴 손글씨로 제작된 말씀액자입니다. 주님미디어에서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물티슈

주보제작

교회로고

머그컵&텀블러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야근 사회’ 속에서 우린 어떻게 안식해야 할까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참된 안식을...

한국 사회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세계가 놀랄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공장은 밤에도 쉬지 않고 돌아갔으며, 근로자들은 혹사당하면서 일에 몰두하였다. 그 결과 극심한 빈곤에서는 벗어났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사람의 몸만 병든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병들었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 전체가 비인격적인 구조로 흘러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눈부신 과학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이 시대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한 인격과 생명의 소중함보다, 기업과 단체의 이익이 여전히 우선시된다. 노동자와 직장인들에게 침과 여유를 주어 개인에게 기쁨과 가정에게 행복을 주는 것을 이 사회는 용납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인간을 사회의 부속물처럼 여기는 주종 구조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친다. 밤늦게까지 일을 손에 잡고 더 벌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문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찌든 마음과 무거운 스트레스를 풀 수 없다는 것이다. 그저 일하고 또 일하고 또 밤늦도록 일하고, 그래야 돈을 주는 기계 구조에 나를 포기해야, 그나마 좀 편해진 다. 개인의 삶도 감당하기 이런 힘든 구조 속에서, 결혼과 자녀와 미래는 꿈은 꿀 수도 없다.

책의 저자는 지금 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목회자다. 그가 교회 성도들의 아픔과 고민을 듣고 이 사회 구조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전했던 메시지가 책으로 나오게 되었다. 저자는 목회적인 사랑과 정성을 담아 책을 저술했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으로만 여기는 이 사회의 병폐와 모순의 원인을 알리기 위해 펜을 들었다.

그렇다고 저자는 책을 통해 불합리한 구조와 사회악을 완전히 개선하고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그는 이런 비인격적인 제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받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진리를 가르쳐 준다. 그래서 책은 개혁적인 책도 아니며 진취적이고 도전적이지도 않다. 책 제목은 우리에게 이미 만연한 사회의 모순과 역설을 해결해 가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야근하는 당신에게
이정규 | 좋은씨앗 | 232쪽

필자는 저자의 이런 해결이 그 어떤 해결보다 마음에 들었다. 저자는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른 방법론을 말하지 않는다. 시편 등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의 메시지를 준다. 이게 무슨 답이 되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이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하는 고난 가운데 사는 믿음이 아니겠는가!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우리가 처한 비참함’이라는 제목으로 4개의 파트로 나누어진다. 여기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야근 실태와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이런 병든 가치관은 기업뿐 아니라 영적 기관인 교회에도 전염되어, 사역자가 제대로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지 못하는 문제까지 포함된다.

그렇다고 저자의 관심이 교회에만 향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러한 잘못된 구조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이 심각한 야근의 문제를 십계명에 적용한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인간에게 살인을 금지하셨는데, 인류는 지금까지 착취와 학대와 차별과 무시와 혐오 등의 죽이는 역사로 사회를 파괴해 왔다.

특히 저자는 여기서 자신의 침체 원인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이 당한 죄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을 비취준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죄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하여 우리를 향해 압박하는 세상에서 그 자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 가볍게 해 준다. 또한 피해자가 되게 만드는 구조 속에서 그 누구도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으니, 오

직 그리스도만이 여기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본임을 드러낸다.

2부도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4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인간에게 주어진 ‘일’은 본래 창조성과 즐거움으로 구성되었는데, 죄로 인해 고통스러운 것으로 변질되었다. 게다가 인간의 노동이 이용당하고 착취당한다. 이런 무너진 원리 속에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죄의 저주를 끊었으니,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을 확신시키고 있다.

또한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여러 형태의 ‘야근’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과 기쁨을 삼으라고 한다. 시편 기자처럼 아침에 눈 뜰 때 천만 인이 적으로 둘러친 치고 있는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저녁에 잠들 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사는 길을 제시한다. 그리고 저자는 구별된 주일에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출애굽 역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자유와 해방이 주어진 날인데, 언제부터 구속과 부담이 더 큰 날이 된 것에 안타까워한다.

3부는 ‘그러나 너는!’이라는 제목으로 두 파트로 구성된다. 여기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으로 안식하게 하라는 사명을 준다.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펼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무시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외에는 소망이 없기에 저자는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부탁한다.

책을 덮으며 필자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아담의 타락 이후 매우 다양한 형태의 ‘야근’이 지속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내 주위에 침을 잃어버리고 지쳐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었다. 또한 안식이 안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참된 안식이 제공되는 피난처가 되게 해 달라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달라고 호소하였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큰 위로와 기쁨이 있을 것이고 죄와 싸워나갈 때 참 안식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방영민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기존 기독교 세계관에 강력히 도전하다

크리스찬북뉴스 추천도서



종결자 그리스도
레슬리 뉴비긴
도서출판100 | 128쪽

성경을 비롯하여 기독교는 역사와 문화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진공 상태에서 주어지거나 형성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이 적어도 한국교회 설교 준비에서부터 강단 선포에서까지 간과되거나 의도적으로 배제되거나 부차적인 부분으로 다루지는 것이 분명하다. 즉 역사성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면, 애써 외면하려는 것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직면하지 않았기에 분명히 불편하지만, 기독교가 다른 세계 고등종교들과 많은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더욱이 기독교는 불교보다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와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위험한 부분이 잔재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부인하기보다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더 정확한 성경이해(해석)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나 함께하심과 응답을 인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종교적 행위의 순간이 아니라, 재난과 구조, 사별과 위로, 죄책감과 용서, 질병과 치유 등과 같은 세속적 삶의 현상이라는 점이다. 즉 복음이 사람들에게 뜻깊게 다가올 때는 특별히 종교(교리)적인 믿음의 어떤 요소들과 관련해서라기보다, 이러한 일상적 경험들과 관련해 뜻깊게 다가오는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질문한다. “타종교에 진리가 없을까?” 놀라지 말라. ‘예!’ 하고 멈추지 말라. 여기까지

만 읽고 ‘종교다원주의’라고 판단하지 말라. 또 저자는 이렇게 질문한다. “타종교에 구원이 있을까?” 본서의 저자는 기독교가 더욱 복음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타종교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의 세계와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구원’은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경륜 안에서 ‘진리’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좀 복잡하지만, 계시의 사건과 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나 계시의 사건은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바른 그리스도(계시)의 종결성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연속성을 먼저 다룬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리스도(계시)의 연속성은 그리스도(계시)의 역사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계시)의 종결성과 대척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계시)의 종결성의 정확한 의미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저자는 ‘복음’과 ‘기독교’를 분리시키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약의 성경들과 그 후의 모든 신학적 결과물들은 ‘기독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르침을 해석한 결과물들이라는 것이다. 신약성경 자체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라는 관점은 매우 도전적이고 날카로운 관점에 속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결성은 기독교를 통하여 역사적으로 확인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이다.

필자도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가 우리들만의 리그 안에서 ‘우물 속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우리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신학과 목회라기보다는, 보다 더 참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학과 목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강도현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운영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도운동종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34년 전통의 성경중심적 보수주의 개혁신학

페이스 기독교대학교 · 신학대학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hristian College(Tampa, FL) www.faithchristiancollege.com

2017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① 본 대학과 대학원은 목회사역과 선교현장에 필요한 수업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며 이에 파격적인 학비를 책정하였습니다.

② 수업방식: 출석수업(매주 목요일 7:30am-10:00pm)과 통신수업 병행

③ 정규 학위 인준 기관

-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AMFED (American Federation Christian College Schools)
- CIE (Commission of Independent Education)
- SAABC (Southern Association of Bible College)의
정회원에 가입되어 미국 어디서나 학점을 인정받고 타 신학교와 학점교류도 가능합니다.

④ 특전: 타신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심사후 인정 받을 수 있음.
본교 졸업 후 정통성 있는 미국교단과 한국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음.

⑤ 미국 50개주 명문 유명 학교와 학점 교류
- Online으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Dallas Thrological Seminary · Indian University · Lee University
· Liberty University · Oral Roberts University · Regent University

학생모집 (학위과정, 학점, 자격, 논문)

On-Campus : Intensive and Distance Special Education Program

학위	학과	학점	자격
대학부 Bachelor 장학금 지급	학사-신학(B. TH)	128	고졸 이상자
	교육학(B.C.E)	128	
	목회학(B.P.M)	128	
대학원 Master 장학금 지급	목회학석사(M.Div)	96	신학대학 및 일반대학 졸업자
	신학석사(M.TH)	96	
	교육학석사(M.C.E)	96	
	상담학석사(M.C.C)	96	
박사과정 Doctor Degree 장학금 지급	목회학박사(D.Min)	32	석사학위이상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신학박사(Th.D)	64	
	교육학박사(D.C.E)	64	
	상담학박사(D.C.C)	64	
	신학 Ph.D.	64	
	상담학 Ph.D.	64	신학박사, 상담학박사 출업자

(213) 503-5330
email: la.faith@hotmail.com

제 1 캠퍼스 : 3251 W. 6th St., #101, L.A, CA 90020
제 2 캠퍼스 : 11976 Artesia Blvd., Artesia, CA 90701

학 장 : 양병삼 박사 Th.D.,
부 학 장 : 김상기 박사 D.Miss.
대 학 원 장 : 홍성표 박사 Ph.D.T.
이 사 장 : David Jun 박사 Ph.D.,

In Seoul, a Korean American Pastor Hopes for a Gospel Movement

Pastor Leo Rhee of CityLight Seoul shares his passion for and thoughts on ministering in South Korea

BY RACHAEL LEE

Much like the name of the church he is leading, Pastor Leo Rhee of CityLight Seoul hopes to see a movement of Christians in Seoul who aim to be a “light” in the city, proactively loving the city and sharing the gospel – for the good of the city and to see God’s kingdom come. It’s also made evident in the church’s slogan: “A church in the city to love the city.”

Rhee’s commitment to and passion for Seoul came at a later stage in his life. As a Chicago native, most of Rhee’s earlier years in ministry were in the U.S., serving in cities such as Philadelphia, Los Angeles, and Baltimore. A visit to Seoul in 1999 led to a pastoral position in the English ministry of Onnuri Church, one of the largest churches in Seoul.

After seven years of serving at Onnuri, and another seven years at a church back in Chicago, Rhee returned to Seoul and traveled to various places in Asia during a two-year sabbatical period. This period grew Rhee’s passion for Asia and Seoul even more.

“I was traveling all around Asia, and I realized that the center of Christianity is no longer Europe or North America, but it shifted to Africa and Asia,” Rhee said. “And Korea is somehow in the midst

of all of that. This little country became the hub of Christianity, entertainment, business, technology, culture, and has so much influence over the rest of Asia.”

“Korea is a key component of what God is doing in greater Asia,” he added.

Hence, CityLight Seoul, which began in May of 2015, was launched with the vision to serve Sinchon – the region of Seoul in which the church is located – and to raise missionaries who would share the gospel to all nations.

*“Korea is a
key component of
what God is doing in
greater Asia.”*

Rhee’s experience in Seoul over the past several years have made him hopeful that this passion to see a greater kingdom movement happen in and through Korea is not only his own. When Rhee had been serving in Korea more than ten years ago, he said, much of the buzz in the church community revolved around the megachurches. Today, Rhee sees more and more smaller churches having a desire to collaborate with one another

for a greater kingdom impact.

“There’s this new generation of young Korean pastors who are tired of the megachurch scene,” said Rhee. “There are these smaller churches of 100 to 800 people that are like battleships that move quickly and make decisions fast.”

“They want to see change happen, and they have this kingdom mindset. The leaders don’t want to see their church to be just another empire. They’re willing to let go, and want to partner with other pastors,” he continued.

This desire for collaboration is also apparent among the English-speaking pastors in Seoul, according to Rhee. About 70 to 80 English-speaking pastors are a part of the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Ministries (AIM) in South Korea, Rhee said. Many of these pastors’ churches gather several times each year for joint worship services, and the pastors of AIM gather on a monthly basis to share and pray together.

Many in the English-speaking community also share Rhee’s desire to practically serve the city and community in which they are located, he said.

“A lot of churches are trying to give back to Korea and make a difference in Korea,” said Rhee, adding that many are trying to be a part of combating social issues such as sex trafficking, poverty,



Pastor Leo Rhee is the lead pastor of CityLight Seoul, located in the Sinchon region of the city.

and homelessness.

CityLight Seoul in particular joins other international ministries in a monthly homeless outreach called Nanumi Homeless Outreach. And the church’s most recent collection of its monthly missions offering will be given to the Women’s Hope Center, a care center for women and expecting mothers who have experienced

abuse.

“Jeremiah 29 talks about praying for the prosperity of the city – ‘if [the city] prospers, you too will prosper.’ God tells the Israelites in Babylon to make gardens, settle down. Don’t use the city for yourself or abuse it to just pay off your debt, suck out all of the resources and go home. While you are here, make a difference.”

Open Stewardship Foundation to Award Over \$300,000 to 45 Non-Profit Organizations

For the sixth year, Open Bank aims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by giving to non-profits through the Open Stewardship Foundation

The organizations that would receive charitable funds from Open Stewardship Foundation this year have been selected and announced. Open Stewardship Foundation has been working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by giving 10 percent of the profits of Open Bank to organizations that serve their local communities each year. Open Bank and Open Stewardship Foundation have given \$366,000 to 45 organizations this year, making the total that they have given back over the past six years to amount to \$1,726,000. The 45 organizations that have been selected will

be awarded the funds at Open Bank’s office on Western Avenue on March 23.

Among the organizations that were selected to receive funds this year included Milal Mission, Hope Sight Mission, The Well Mission,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oreatown Youth and Community Center, and Somang Society.

“In this year’s selection process once again, we prioritized those organizations that serve the marginalized in the community, and those that have integrity and have been faithful,” Open Stewardship Foundation stated. “We also

particularly examined the way that previous recipients of the funds used the money that they received.”

“We at Open Bank will not only provide support through financial means, but our staff will serve and run together with the community,” said Min Kim, the CEO of Open Bank.

Open Stewardship Foundation is a foundation that was established in 2011 by Open Bank as a way to serve the community. Since its establishment, various active non-profits have been able to apply for and receive financial support.

Scholarship Opportunity Seeks to Provide Support for Undocumented Korean Students

The Christian company Lee’s Mortuary will be selecting scholarship recipients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undocumented Korean students. The company aims to encourage and support those Korean students who have suffered particularly due to the recent anti-immigrant executive orders.

Those who wish to apply can do so by submitting letters of recommendation from pastors and other community leaders, as well as an essay written in Korean introducing the applicant’s dreams and current situation, to hr@leesmortuary.com. The application period is from April 1 to May 30, and recipients will

be selected by June 5. Awards will be given on June 10 at Lee’s Mortuary’s headquarters in Orange. The company has prepared \$10,000 to give scholarships of \$500 to 20 students.

“I wanted to show that even a small Korean business like ours has the desire to participate in the pain of undocumented students, and to support and encourage them,” said Dong Joo Lee, the CEO of Lee’s Mortuary.

The mortuary, which was established in 1966, provides services in Los Angeles, Orange County, Atlanta, and Chicago, and also offers funeral services at the homes or churches of the deceased.

Dr. Thom Rainer: Five Reasons Growth May Be Difficult in Your Church

Every year another two million American adults become less receptive to the gospel, and less receptive to churches.

Every year.

That is one of the nuggets I took from the Pew Research work on the “Nones” when they first released the data in 2012. Pew has continued to follow the religious commitment level of Americans. From 2007 to 2014, over 12 million American adults have moved from a high level of religious commitment to a low level of commitment. They just skipped the medium level of commitment altogether.

Cultural Christianity is dying.

One no longer has to be a Christian or in a church to be accepted by society. That relatively easy pool of prospective attendees for our churches is disappearing.

But most churches keep doing what they’ve always done.

As a consequence, they are reaching fewer. They are declining.

Why?

The answer to that question is too complex for a simple blog post, but let me provide five high-level responses for now.

1. Church members are not being intentionally relational with those who are not in church. The old way of church outreach was more transactional; today it requires the development of relationships. Most church members will not take that step. Many don’t know how to take that step.

2. Many churches are stuck in the past. While we never compromise the gospel and the Word, our methodologies must reflect an awareness of our culture, and a willingness to be missionaries to that culture. Sadly, too many church members are unwilling to make

changes. Church, for them, is about their needs and their preferences.

3. Church members are not regularly inviting people to church. Yes, it can be that simple. Many of the religiously unaffiliated will come to church if we invite them. But it’s difficult for them to respond to an invitation if they never get one.

4. Many church members fail to act like Christians on social media. Unbelievers are watching us on Facebook and Twitter. And many of us are more likely to show our rear ends than Christian love. Social media is where the unchurched reside. And they constantly see our petty quarrels, our venomous politics, and our self-serving attitudes. Look at this blog post about what non-Christians think about us. I wrote it in 2013, but the comments still come in from unbelievers.

5. If they come to church, they only have a mediocre experience. The religiously unaffiliated do visit our churches from time to time. But, more often than not, they see our holy huddles and our lukewarm greetings. Most will not return.

Growth is indeed more difficult in most of our churches today. We no longer have the large pool of cultural Christians from which to draw. But we can reach them. We must reach them.

We will have to treat our membership in our churches as missionaries to the community instead of country club membership. Biblical membership is not about getting our perks, privileges, and preferences. It’s about sacrificing self for the gospel.

Then, and only then, will we see our churches start growing again.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at ThomRainer.com



Photo courtesy of Dr. Thom Rainer.

on March 13, 2017. Thom S. Rainer serves as president and CEO of LifeWay Christian Resources. Among his greatest joys are his family: his wife Nellie Jo; three sons, Sam, Art, and Jess; and nine grandchildren. Dr. Rainer can be found on Twitter @ThomRainer and at facebook.com/Thom.S.Rainer.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6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Christian Leaders Urge Law makers to Reject Trump Administration’s Proposed Budget Cuts on Foreign Aid

More than 100 Christian leaders signed a letter addressed to members of Congress, urging them to reject President Trump’s proposed budget cuts on foreign aid.

The Trump administration released its budget blueprint on March 16, called “America First: A Budget Blueprint to Make America Great Again,” among which included cuts to the foreign aid budget called the International Affairs Budget. The blueprint would cut the budgets of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by 37 percent, according to reports, while increasing military spending.

The letter, dated March 16, emphasizes the help that the International Affairs Budget was able to provide for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With just 1 percent of our nation’s budget, the International Affairs Budget has helped alleviate the suffering of millions; drastically cutting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extreme poverty in half, stopp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like HIV/AIDs and Ebola, and nearly eliminating polio,” the letter states. “Additionally, it promotes freedom and human rights,

protecting religious freedom for millions around the world.”

“As followers of Christ, it is our moral responsibility to urge you to support and protect the International Affairs Budget, and avoid disproportionate cuts to these vital programs that ensure that our country continues to be the ‘shining city upon a hill.’”

Denominational leaders who signed the letter included George Wood, the general superintendent of the Assemblies of God; Ronnie Floyd, previous president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Jo Anne Lyon, the general superintendent emerita of The Wesleyan Church; David Wilson,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Church of Nazarene; and Colin P. Watson, Sr., the director of ministries and administration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Leaders of World Vision USA, Catholic Relief Services, Council for Christian Colleges & Universities,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Habitat for Humanity, Compassion International, World Relief, and Food for the Hungry, and presidents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enver Semi-

nary,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and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were also among the signatories.

Worship artists Michael W. Smith, Amy Grant, Brandon Heath, and Third Day signed the letter as well.

Meanwhile, Christians are not the only group that have urged members of Congress to protect funding for foreign aid. In late February, over 120 retired military officials, including generals and admirals, wrote a letter to lawmakers emphasizing the need to secure funding to address development issues across the world to ensure military security as well.

“The military will lead the fight against terrorism on the battlefield,” the letter states, “but it needs strong civilian partners in the battle against the drivers of extremism — lack of opportunity, insecurity, injustice, and hopelessness.”

The blueprint released on Thursday, also known as the ‘skinny budget,’ is a rough sketch of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opes to achieve in the budget. The full budget with more comprehensive descriptions and numbers is set to be released in May.

Russell Moore, 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Publish Statement Calling for Unity in SBC

Responding to a months long controversy,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s 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ERLC), and its president Russell Moore, issued a statement on Monday -- the former affirming its support of the president, and the latter apologizing for the role he played in creating any division within the denomination.

Moore’s comments during the previous presidential election season criticizing Trump and questioning some of his supporters were met with backlash, as more than 100 churches threatened to withdraw funding from the denomination.

Prestonwood Baptist Church in Dallas was one of the most noted of those, as it decided to withhold \$1 million that it planned to give to the denomination.

Moore clarified in his portion of the statement, titled “Seeking Unity in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that his comments during the election were not meant to condemn members of the SBC who support Trump or are serving in his advisory board.

“I was asked often during the election season about evangelicalism as it related to moral issues and character, and in so doing I spoke, often quite sharply, about those Christians who said or implied that such concerns don’t matter or shouldn’t be talked

about,” stated Moore. “I was not, in so doing, intending to talk about Southern Baptists and others — and there were many — who were open about all of these issues but believed in supporting candidates, however flawed, who would appoint good people and carry out good policies.”

“To be clear, I was also not meaning to suggest it was sinful for Southern Baptists or others to advise candidates or to serve on advisory boards in order to bear some influence there. What I was attempting to talk about were those — most often prosperity gospel teachers — who were willing to define the gospel in ways that I believe untrue to the plan of salvation, or to dismiss the moral concerns other Christians had,” he added.

However, Moore apologized for “failing to distinguish between people who shouldn’t have been in the same category with those who put politics over the gospel and for using words, particularly in social media, that were at times overly broad or unnecessarily harsh.”

Moore also emphasized that the “gospel wins over everything in the end,” and encouraged unity in the denomination.

“When I look across our denomination, we have too much at stake, and too much for which to be grateful, to be divided,” he said. “I pray the gos-

pel would win in our denomination, in our churches, and in my own heart. The same gospel that reconciles us to God is the same gospel that allows us to be reconciled to one another.”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ERLC expressed support for Moore, and said that Moore has “sought to be attentive and responsive to those who have brought concerns to him.”

The committee added that it believes Moore has “spoken with clarity and conviction on ethical matters” such as religious liberty and racial reconciliation, and that he “has endeavored clearly and graciously to articulate the Christian gospel and its implications.”

“As an Executive Committee, we believe that Dr. Moore has taken appropriate measures to address this situation,” the committee said.

“We realize that divisions do not heal overnight, and as needs arise our Board will be happy to address them. But in terms of leadership and support, Dr. Moore is the man to whom it has been entrusted to lead this entity — speaking prophetically both to our culture and to our Convention. He will continue doing so with the confidence of our support.”

Shortly following the issuance of the statement, Jack Graham said on Twitter that Moore’s statement was “gracious and unifying.”

Tomb Believed to Have Housed Jesus’ Body Restored with Project Worth Some \$4 Million

A site which is believed by some religious traditions to have contained the body of Jesus after his crucifixion has been repaired and restored after decades of disrepair, a restoration project team announced on Monday.

The shrine which encases the tomb is known as the Edicule, and is located at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in Jerusalem.

The Edicule was restored four times since its establishment, according to a Guardian report. It was almost completely wiped out when a fire broke out in 1808, and was restored in 1810. However, the shrine had not been renovated since.

“I would venture to say that if this intervention hadn’t happened now, there was a very great risk that there could have been a collapse,” Bonnie Burnham of the World Monuments Fund, was quoted as saying by NPR. The World Monuments Fund was one of the contributors to the restoration project which cost some \$4 million.

A team of some 50 from the National Technical University of Athens conducted the restoration project, supervised by Antonia Moropoulou.

One of the noted portions of the restoration is that the iron girders that once surrounded the Edicule to stabilize it has been removed, and the restoration team instead strengthened the shrine with mortar and bolts of titanium, according to



The Edicule, located at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in Jerusalem, pictured in September 2012. (Photo: Israel Tourism / Wikimedia Commons / CC)

reports.

The team also opened up a small window in the Edicule that allows onlookers to see the rock shelf on which some believe Jesus’ body after the crucifixion had been laid, and then from which Jesus resurrected.

Meanwhile, the jurisdiction over

the church had been split between six parties since 1752, including the Armenian Orthodox, Coptic Christian, Ethiopian Orthodox, Roman Catholic, and Syrian Orthodox religious groups. Over decades, these groups have often been involved in conflict over the church.

Christianity Daily will not be issued next week.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1:30 PM
Children's Ministry: 11 AM
Friday Worship: 7:30 PM
Dawn Prayers: 5:30 AM Tu-F; 6:30 AM Sat.

PASTOR WON LEE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org

Sunday Services: 1:45 PM

PASTOR MITCHELL PEREZ

The Home Church

19100 E. Killian Avenu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 (1병 Free)
\$267+Tax

*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프로지 골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